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제1195호

대우조선해양 2조원대 분식회계

'국세청 최정예팀' 못 밝혔나, 안 밝혔나

〈기업 탈세 조사전문 '조사4국'〉

작년 사전예고 없이 4개월간 고강도 심층 세무조사
소득액 누락 십수억 추징뿐… 檢 고발 등 없이 종결
'베테랑 요원들이 재무제표 분석 소홀… 왜?' 의혹

2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말 국세청의 중수부로 잘 알려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대우조선해양 본사에 사전예고도 없이 투입, 같은 해 10월까지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종료 후 대우조선해양에 소득금액 누락에 따른 세금 십억원대를 추징했을 뿐 검찰 고발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우조선해양이 해상플랜트 분야에서 무려 2조원 규모의 누적 손실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 조사국 내 최정예 요원들이 포진해 있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말 그대로 '눈 뜨고 당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적잖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임한 국내 대형 로펌이 세목별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대응했다는 점과, 국세청 특별조사국이 과연 재무제표 분석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대형 로펌이 조사 수임을 했다면 당초(특별세무조사 착수 전) 국세청이 예상한 추징금을 거둬들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 특성상 분식회계를 놓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분식회계 시점이 조사대상 회계연도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를 적발해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회계감리 검토 작업을 벌인 후 2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업무처리 방식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의 2조원대 손실 은폐 의혹과 관련해 긴급 실무진 회의를 열고 향후 회계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데다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손익 수정 공시도 없었던 만큼 감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만 채권단 등에서 감리를 요구한다면 그 전이라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 최대 20억원 과징금과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운명의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17일 오전 열렸다.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주주 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노진환 기자 myfixer@

현대상선 vs 서울시

28억 '稅戰'



조세회피지역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과세 놓고 법정공방
1·2심 현대상선 승리… 대법 판결 따라 유사사례에 영향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의 세금을 놓고 서울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현대상선 측은 해외법인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국내 법인이 출자해 세운 회사인 만큼 세금 납부 대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이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HDY shipping Ltd.가 세금 28억2900만원의 납부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소송 중이다. 해당 회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장기 체납법인 상위 10개 중 5위에 올라 있다. 조세회피지역에 세운 합법적 페이퍼컴퍼니의 세금 납부 문제여서 재판 결과는 유사한 경우에 처한 타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DY shipping Ltd.는 현대상선이 중국 파트너사와 50 대 50으로 출자해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조인트 벤처다. 주요 업무는 중동에 있는 원유를 홍콩과 중국 등지로 수출하는 일이다.

세무당국은 지난 2012년 이 회사가 사실상 국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2차 납세자인 현대상선에 세금을 부과했다. 국내 회사가 지분을 절반이나 투자한 데다 대부분의 영업이 현대상선 쪽에서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이에 현대상선은 조세회피처에 있는 해외 법인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13년 1심과 지난해 열린 상고심에서 법원은 현대상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 사이 현대상선은 장기 체납 법인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에서도 현대상선 측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가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는 과정에서 현대상선 측의 이미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만 기자 redpill@

삼성重, 2분기 1조원대 손실

에지나 프로젝트 공사중지 등
해양플랜트부문 악재 잇따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중공업도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서 2분기 1조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 수주한 30억 달러(3조4400억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에지나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프로젝트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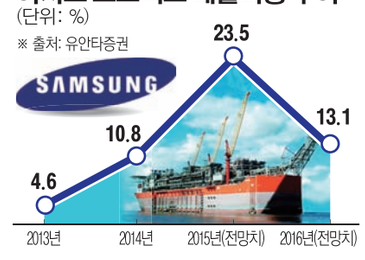
나이지리아 라고스 연방고등법원은 지난 5월 에지나 프로젝트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나이지리아의 한 변호사는 해당 공사가 안전·환경 법률에 어긋난다며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

삼성중공업은 또 지난 2012년 27억 달러(3조1000억원)에 수주한 호주 이치스 CPF(해양가스설비)도 설계 변경으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의 에지나, 이치스 프로젝트 매출비중 추이

(단위: %)

※ 출처: 유안타증권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매출 중 에지나와 이치스 두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5%에 달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쌓은 공사손실충당금 규모가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회사는 2014년 1분기 에지나, 이치스 등 2개 프로젝트의 손실을 대비해 5000억원의 충당금을 회계에 반영했다.

해양플랜트업계 관계자는 "에지나 프로젝트는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소송까지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외부감사 맡은 '딜로이트 안진' 묵인 의혹

최근 5년간 대우조선 '적정' 의견… 동양그룹 부실감사 이어 신뢰성 타격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회계법인)이 올해 초 동양그룹 부실 감사로 도마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에는 2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일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안진회계법인이 지난 2010년 처음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은 후 최근 5년(2014년)의 감사 의견으로 '적정'과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미해당'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연도는 2011년은 공교롭게도(?)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시점이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1년 수주한 해양플랜트부문의 손실을 포함해 그동안 발생한 2조원대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내린 감사 의견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수년간에 걸쳐 최소 2조원대 손실이 발생했는 데도 감사인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세무 및 회계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분식회계 가능성은 차후 금융당국 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지겠지만, 만일 사실일 경우 감사인은 적지 않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안진회계법인은 동양그룹 계열사 부실 감사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이 경미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계열사 다섯 곳의 감사를 맡은 삼일·삼정KPMG·EY한영 등 3곳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감사 절차 소홀 등의 이유로 회계법인이 받은 제재 건수는 모두 48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2년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 8건, 2014년 14건의 제재가 있었다.

같은 기간 '국내 빅4' 회계법인 중에서는 한영회계법인이 4차례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이어 삼일회계법인 3차례, 안진회계법인 2차례, 삼정회계법인이 1차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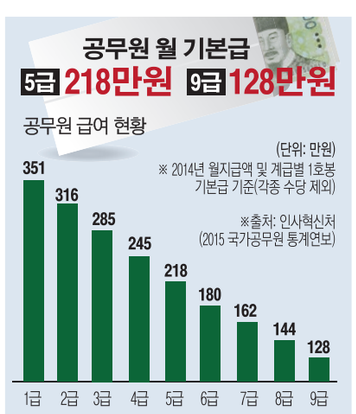
데이터 뉴스 Dat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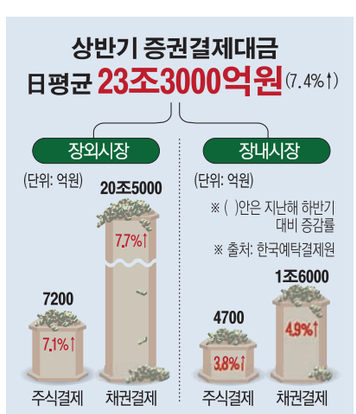
공무원 급여, 민간임금의 84% 수준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공무원의 월급 내역이 공개됐다.

16일 인사혁신처가 발간한 '국가공무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장 낮은 9급 공무원의 첫 기본급은 월 128만원, 7급은 161만원, 5급은 21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1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최대 603만원 수준으로 올라갔다. 국가정보원이나 경호실 등 공안업무 담당 1급 공무원은 최고 622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총 기자 kec@





증권결제대금 전반기보다 7.4%↑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증권결제대금이 일평균 2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직전 반기(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7.4% 늘어난 수치다.

예탁원은 장외 주식기관 결제가 일평균 7200억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7.1% 증가하고, 장외 채권기관 결제는 일평균 20조5000억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7.7% 늘면서 결제대금이 크게 뛰었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gamja@

하루 한 생각 以管窺天 (이관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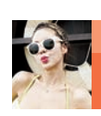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니 뭘 알겠나 ▶ 12면



신동빈 회장 ▶2



박정부 회장 ▶13



Star 스페셜 ▶15~17
연예계 노출의 법칙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일본도 장악… 바야흐로 '신동빈의 롯데'

〈롯데그룹 회장〉

日롯데홀딩스 대표이사도 맡아
'원 롯데 원 리더' 독주체제 구축
일본 매출, 한국 10분의 1 수준
신속 의사 결정 '공격투자' 전망
제2롯데월드·쇼핑 등 실적부진
국내 계열사들 내부정비 과제로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빈〈사진〉 회장이 한국과 일본 롯데를 모두 장악했다. 롯데는 16일 오후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한국 롯데에 이어 일본 롯데의 사업도 책임지게 되면서 롯데의 일인자로 우뚝 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기업승계에 종지부를 찍었다.

◇"원 롯데 원 리더"…신동빈 독주 체제 완성 = 롯데그룹의 승계 구도가 신 회장 쪽으로 사실상 기울어진 시기는 지난해 말이다. 그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작년 12월 26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롯데 이사, 롯데상사 대표이사, 롯데아이스 이사에서 해임된 이후 7개월 만이고, 롯데홀딩스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6개월 만이다.

신 회장은 지난 1월 일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으로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신동주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해임에 대해 "일본 롯데 상황은 아버님이 결정하신 일이다. 잘 모른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한·일 롯데의 1인 경영시대가 도래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후에도 형인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 건설과 롯데리아 임원직에서도 배제되면서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했다. 신 회장이 한·일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한 정황은 지난 3월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베트남에서 신동빈 회장 주재로 열린 글로벌 식품 전략회의에서 신 전 부회장의 후임으로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를 맡고 있던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원 롯데, 원 리더'라는 문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롯데는 한 명의 리더 아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롯데까지 맡게 된 신 회장은 16일 오후 주요 계열사 사장단회의를 열어 "이번 이사회의 결정을 겸허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받들어 한국과 일본의 롯데사업을 모두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한편 리더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과제…한국 내부정비·일본 경영권 공백 = 한국과 일본으로 분리돼 있던 롯데의 경영권이 신 회장 1인 체제로 가닥을 잡으면서 롯데도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롯데의 규모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2013년 기준으로 일본 롯데의 매출은 4077억9300억 엔(약 4조원), 한국은 55조4186억원이다. 신 전 부회장이 물러난 후 6~7개월 동안 일본 롯데는 사실상 전문경영인에 의해 유지돼 왔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롯데도 해외사업이니 국내에서의 투자 등 결정할 사안이 많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물러난 이후 적극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신 회장이 대표에 취임한 만큼 공격적 경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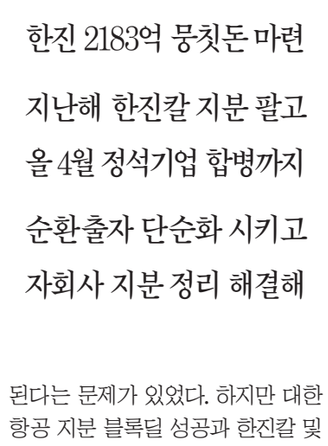
한국에서의 산적한 과제도 신 회장이 해결해야 할 몫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는 아직까지 불안을 떨쳐내지 못했다. 영업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아쿠아리움과 시네마의 재개장과 주차규제 완화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한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기엔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다.

국내 계열사의 실적 문제도 골칫거리다. 그룹 주력인 롯데쇼핑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21%나 감소했고, 롯데케미칼 등 여러 계열사들이 부진에서 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원톱이 된 만큼 신 회장이 불안한 한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대한항공 지분 블록딜 성공
조양호 '지주사 전환' 영근 꿈

〈한진그룹 회장〉



지분 7.95% 579만주 매각
한진 2183억 뭉칫돈 마련
지난해 한진칼 지분 팔고
올 4월 정석기업 합병까지
순환출자 단순화 시키고
자회사 지분 정리 해결해

한진그룹이 지주사 전환에 꼭 필요한 ㈜한진 보유 대한항공 지분 블록딜에 성공하면서, 조양호〈사진〉 회장이 지주사 전환 작업 종결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진은 지난 15일 장 종료 직후 보유 중인 대한항공 지분 579만2627주(7.95%)에 대한 기관 투자자 블록딜 수요 예측에 돌입했다. 한 주당 매각 가격은 이날 종가(3만9450원) 대비 4.4% 할인율이 적용된 3만7700원으로 제시됐다.

이번 블록딜 성사로 한진은 총 2183억8200만원 규모의 뭉칫돈을 손에 쥐게 됐다.

㈜한진은 앞서 지난 8일 지분을 매각하고자 블록딜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후 기존 블록딜 주관사인 삼성증권과 씨티글로벌마켓증권 공동 주관사에서 모건스탠리 단독 주관으로 전격 교체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진그룹은 2013년 8월 지주사 전환을 결정했으며 한진칼과 항공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진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5.33%)을 매각해 '한진칼→정석기업→㈜한진→한진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지배구조가 '통합지주사→정석기업(사업부문)·㈜한진'으로 단순화됐다.

또 올해 4월 23일에는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지난달 30일에는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투자부문 합병을 진행해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2년 내에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고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처분이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 지주사 체제에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손자회사인 ㈜한진 등이 증손자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매각을 진행한다 해도 공동 출자 형태가 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대한항공 지분 블록딜 성공과 한진칼 및 정석기업의 합병 등으로 이 같은 문제를 모두 해소했다.

이번 블록딜 성공으로 한진그룹은 지주사 전환 완료까지 한진해운의 자회사인 한진퍼시픽·한진해운신항만·한진케리로지스틱스·한진해운신항만물류센터·부산인터내셔널터미널·한진해운광양터미널·부산마린앤오일·한진해운경인터미널 지분을 처분하는 과제만 남았다.

조남호 기자 spdran@

홍성국의 '역발상 경영'… KDB대우증권 '호실적' 빛봤다

불황에 구조조정 대신 영업 강화
직원들과 전단지 길거리 홍보도
2분기 실적도 시장기대치 웃돌아
브로커리지 1119억 수익 44% ↑
WM·IB 등 모든 분야 균형 성장



홍성국〈사진〉 KDB대우증권 사장의 역발상 경영이 호실적을 이끌어내며 빛을 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인력 구조조정 등에 나서며 단기 실적 내기에 급급했던 것과 달리 '사람이 답'이라며 직원들을 끌어안았던 홍 사장이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

17일 대우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의 2분기(4~6월) 실적은 영업이익 1536억원, 세후 순이익 1183억원으로 전년 동기 각각 대비 139%, 127.9% 증가했다. 지난 1분기 대비 각각 7.8%, 6.6% 늘어난 실적이다.

지난해 말 취임한 홍 사장은 다른 증권사들과 달리 역발상의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국내 대형 증권사는 물론 중소형사들도 최근 몇 년간 브로커리지 침체 등으로 잇단 지점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홍 사장은 이 같은 업계 상황에서 오히려 지점 영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임직원들은 이 같은 홍 사장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올 2분기에 브로커리지,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유가증권운용수익(S&T) 등 모든 분야에서 양호한 실적을 달성, 균형 성장의 수익구조를 실현했다.

우선 브로커리지 부문은 1119억원의 수익을 기록해 전 분기보다 약 44% 증가했다. 증시 거래대금이 7조6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6%가량 증가한 가운데, 시장점유율이 지난 분기 5.7%에서 6.0%로 늘어났다.

WM부문은 월별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수 있는 안정적 수익원으로 성장했다. 특히 신탁, 연금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어 창사 이후 최초로 금융상품 판매잔고 60조원을 돌파하며 327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IB부문은 312억원으로 구조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업여신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한 결과 2010년 이후 처음으로 300억원대 매출을 달성했다.

S&T부문도 파생결합상품 조기상환 증대, 시장변동성 확대를 활용한 헤지트레이딩 실적 호조 등 파생운용손익 개선으로 958억원을 벌어들였다.

설경진 기자 skj78@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aT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식품!
이제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창조농업, aT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변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소액주주들이 많이 찬성해주셨다… 잘 마무리 될 것"

삼성물산 합병 주총 현장

최치훈·김신 사장 여유있는 모습

개회 시작 2시간 전부터 긴 줄

4·5층 회의장 1000여석 빽빽

한때 찬반 양측 고성 오가기도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일사천리로 합병안을 통과시킨 제일모직 주총장 분위기와 달리 삼성물산 주주총회장에는 시종일관 긴장감이 흘렀다.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날 주총에서는 △합병계약 승인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 △주총을 통한 중간배당 결의와 중간배당을 현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의 건 등 3가지를 다루게 된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주총장 입장 접수를 받기 시작한 오전 7시부터 속속 모여들었다. 이들은 주총장인 5층 대회의실 앞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주총장에 들어섰다. 입장한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의견을 나누거나 삼성 측이 나눠준 의안설명서를 읽었다.

주총이 시작된 오전 9시35분께는 600여석이 마련된 5층 대회의실이 주주들로 꽉 들어찼다. 삼성물산이 4층에 추가로 400여석이 마련된 중회의장을 마련했음에도 일부 자리에 앉지 못한 주주들이 많을 정도로 주주들이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은 대부분 차분한 분위기를 보였지만, 일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다소 과격한 단어를 써가며 합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합병에 찬성한다는 삼성물산 주주 김연우(가명, 38세)씨는 "결국 '돈'이 목표인 외국계 헤지펀드에 한국기업과 주주들이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연차까지 내고 참석했다"며 "당장의 합병 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합병 반대 입장인 박찬열(가명, 48세)씨는 "집이 울산인데 새벽 1시에 출발해 7시 좀 넘어 주총장에 도착했다"며 "12년 된 주주인데 이번 합병안은 삼성물산을 오래 지켜봐온 주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총 의장을 맡은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과 김신 상사부문 사장은 오전 8시 30분쯤 aT센터에 도착했다. 검정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온 최 사장은 "주주들에게 달렸다"는 짧은 한마디만 남긴채 서둘러 자리를 뗬다. 최 사장이 주총장으로 향하는 와중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한명이 최 사장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김 사장은 "국내외 많은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내주셨다"며 "오늘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총은 예정된 시각인 오전 9시를 넘겼음에도 몰려드는 주주들과 위임장 확인, 최종 참석률 집계 등의 절차를 밟느라 계속 지연됐다. 기다리다 지친 일부 주주들이 "9시 이전에 온 주주들만으로 주총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삼성물산 측 오창현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는 "법률적으로 출석 주주를 확정해야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집계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주주들에게 당부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주 몇몇이 의장 단상에 올라 합병 반대 의견을 밝히려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제지당한 후에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과 찬성하는 주주들 사이에 고성과 욕설 등이 오갔다.

계속 지연되자 삼성물산은 9시 35분쯤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1호 의안 의결 때 참석률을 확정하기로 하고 개회 선언을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위임장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주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 주총 시작부터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17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주주들이 몰려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큰 관심을 보였다(사진1). 이날 주주총회의 의장을 맡은 최치훈 건설부문 사장(사진2)과 김신 상사부문 사장(사진3)이 주주총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주주들이 총회장 입장 전 주주명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4).

노진환 기자 myfixer@·삼성물산 제공

제일모직 주총은 일사천리…합병안 통과

3개 안건 반대의견 없이 모두 가결

제일모직 주주총회가 시작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제일모직은 17일 오전 9시에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 1층 콘퍼런스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다. 안건으로 상정된 △합병계약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감사위원 선임 등 3건이 단 한 번의 반대 의견 없이 줄줄이 통과됐다.

주총 의장으로 참석한 윤주화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높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의장은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9월 1일 연매출 34조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며 "각 사업부문에서 높은 시너지를 발휘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30% 이상의 배당성향을 지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더욱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주들은 윤 의장의 말에 동의하며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참석한 한 주주가 "패션, 건설, 리조트, 바이오 등 각 부문에서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다"고 말하자 나머지 주주들은 박수로 동의했다.

윤 의장이 반대 의사가 있는 주주가 있는지 거듭 물었지만 반대를 하는 주주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두 명 정도의 반대표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는지 그는 당황하는 기색마저 보였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이 통과되자 이사 보수한도 승인과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 역시 주주들의 박수와 함께 줄줄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주총은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총장에는 오전 7시 전부터 총회 참석을 기다리는 주주들로 북적였다. 7시가 되자 주주들은 신분 확인을 받은 뒤 주총장으로 차분히 입장했다.

오전 8시가 좀 넘어가자 주주를 위해 마련된 좌석 절반 이상이 찼다. 오전 8시 30분이 지나서까지도 주주들이 속속 참가하며 300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합병이 승인되면 양사는 9월 1일 통합된 삼성물산으로 다시 태어난다.

박성제 기자 psj@

황영기 "이번 사태 교훈 삼아 주주친화 정책 강화해야"



'삼성맨' 출신인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끈다.

삼성물산 주총 전날인 16일 황 회장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을 전제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내 대기업들이 엘리엇과 삼성물산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배당 등 주주친화적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황 회장은 "17일 삼성물산 주총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장대로 합병이 불발되면 향후 대기업들은 회사 성장보다 오너 지배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그동안 회사를 성장시키느라 지분율이 취약한 기업들의 허점을 공격한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들의 공격을 막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장, 고용 등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장 삼성을 도와 헤지펀드 공격을 막아내는 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 그동안 지분율에 신경을 쓰지 못한 대기업들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할 경우, 향후 다른 대기업들은 투자, 성장, 고용 대신 지배력 강화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지적인 것.

그러나 대기업들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향후 외국인이나 소액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경아 기자 kakim@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지배구조 개편안 내주 발표
운용체계 개선 등 21일 논의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에 따르면 보사연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연금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보사연은 그간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때문에 이날 보사연이 발표하는 개편안은 복지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될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의 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따로 떼어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담길 전망이다. 보사연은 또 국민연금기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다만 보사연은 위원들을 누가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복수의 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이 위원회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아울러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주재로 격상시켜 연금 관련 제도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나서서 이 같은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운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운용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부미 기자 boomi@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 다과록에서 아이들이 미술교과과정과 연계한 떡 만들기(왼쪽)와 나무 등에서 추출한 천연색 재료를 이용한 염색 체험을 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교육장 활용·향토 음식문화 체험…

'농업 6차산업화' 돈 되네

농촌진흥청 6차산업 핵심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참여농가 연평균소득증가율(%)	13	13.6	14.3	15.5
일자리 창출(명)	2001	2500	2750	3000
창업경영체 수(농가수)	392	435	479	527

시범농가 연평균 소득 13% 늘어
일반농가 증가율보다 2배 높아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도

농업의 6차 산업화가 농가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결실을 보고 있다.

단순히 농축산물을 길러내는 것에서 가공, 외식, 유통, 관광, 레저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농촌진흥청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17일 농진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6차 산업 지역단위와 농가단위 시범사업장(209개소) 경영체의 연평균 농가소득 증가율은 13.0%로 일반 농가 연평균 증가율(7.0%)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같은 기간 3122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이는 사업장 평균 4.2명을 고용한 것과 같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림축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에 있는 '다과록'은 친환경 농촌교육농장으로 포도밭과 녹차밭, 각종 유실수, 야생화로 친환경 학습장을 조성하고 전통음식, 다도, 천연염색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5000명이 방문해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향토음식자원화사업인 농가맛집사업은 지역별 황토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음식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에 있는 '토리샘'은 집 앞마당에 대대로 내려오는 옻샘 약수를 스토리텔링해 향토 음식을 개발했다. 특히 일반 숙박객에게 향토음식 제공 프로그램을 연계한 마케팅으로 지난해 4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강원도 횡성군의 '오음산산야초밥상'은 주민이 채취한 산야초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인근 가공사업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발효액과 식초, 천연 샴푸 등을 판매, 유통한다. 여기에 향토음식 체험과 농촌교육농장까지 연계해 6차 산업화의 성공 사례이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방문객 2400명, 매출 7400만원의 성과를 거뒀다.

전남 순천의 순천앤매실농업회사법인은 매실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례다. 매실을 엑기스, 조청, 장아찌 등으로 가공, 판매해 2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남 합천군의 하남양떡메정보화마을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의 주산물인 양파, 쌀, 콩을 사들이고 양파즙, 떡국 가래떡, 메주 등으로 가공, 판매해 4억원의 연매출을 올렸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게으른농부영농조합법인은 농진청의 FTA경쟁력 제고사업에 선정돼 쌀 품질을 관리한 것이 눈에 띈다. 100% 친환경 고급 쌀 유통을 통한 타깃 차별화로 지난해 가래떡, 인절미 등과 쌀을 유통해 45억원의 고소득을 달성했다.

축산 분야에서도 6차 산업화의 성공 사례가 늘고 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썬러브앤효덕목장은 원유만 생산, 시 7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목장형 유가공과 치즈체험 등 교육·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매출이 1.3배 뛰어 10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연간 체험객도 10~20% 증가해 4800명에 이른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지자체들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6차 산업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새로운 경제활동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많은 농업 경영체가 2~3배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자료제공=농촌진흥청

RDA 농촌진흥청

내년 R&D 키워드 '스마트·안전·친환경'

산업부, 핵심투자대상 113개·기술테마 279개 선정

창의·소재부품·시스템·에너지 4대산업 융복합 투자대상 발굴
정부정책 연계 기술개발 집중
올 투자대상·테마 수보다 축소

정부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개발(R&D)의 윤곽이 나왔다. 창의, 소재부품, 시스템, 에너지 등 4대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라이프 케어 서비스, 3D프린팅, 제로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융복합 핵심 투자대상을 발굴한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조혁신 3.0,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정책과 연계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국가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보다 투자 대상과 기술테마 수도 대폭 축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산업R&D 조정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산업기술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사업화 연계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산업 트렌드, 국내외 R&D투자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창의, 소재부품, 시스템, 에너지 등 4대 산업 분야에서 113개 핵심 투자대상과 279개 핵심 기술개발 테마를 선정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올해 핵심 투자대상 195개, 핵심 기술테마 387개였던 것에 비해 그 수를 대폭 줄였다.

핵심 기술개발 테마를 기술개발 목표별로 보면 기존 산업·기술 고부가가치화(136개), 신기술·신시장 창출(110개), 산업생태계 조성(33개)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산업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별로 분류할 경우 한·중 FTA 대응 관련 폴리우레탄 중간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소재기술, 셰일가스 대응 올레핀 제조·고부가가치화 기술 등 54개, '제조혁신 3.0'을 위한 ICT 융합 의류제조업 혁신, 스마트 가공 시스템, 스마트공장 대응 제조용 로봇 등 35개가 포함됐다.

'산업 엔진 육성'과 '에너지 신사업' 분야에서는 각각 고유연 전극 및 전해질 소재기술, 자율주행 기술 등 23개,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서비스,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에너지 자립섬, 전기자동차 등 12개 핵심 기술테마가 선정됐다.

산업부는 또 고령화, 개인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적 변화, 융복합 가속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기술혁신의 편익이 실생활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8개 키워드를 선정했다.

8개 키워드는 △스마트화(설계-공정-소재 융합 스마트 솔루션 기술 등) △안전(친환경 나노 복합소재, 친환경 금속공정 기반기술 등) △친환경(친환경 나노 복합소재, 친환경 금속공정 기반기술 등) △실버·웰빙(생체 적합형 인공소재·디바이스 등) △무인화(자동차 상황 인지 기술, 자율주행 기술 등) △경량화(항공기용 고강도 경량 비철소재·부품 등) △공정혁신(스마트 표면기능 제어 코팅소재·공정 기술 등) 등으로 관련 테마기술은 전체의 48%인 133개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한 핵심 기술개발 테마 범위 내에서 내년도 R&D 신규과제를 기획·지원할 계획인 만큼 R&BD전략은 산업부 R&D지원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2017년에는 산업기술 R&BD전략이 민간투자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산업 트렌드와 대내·외 민간·정부 R&D 투자동향을 보다 엄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2015년/2016년 산업부 R&BD전략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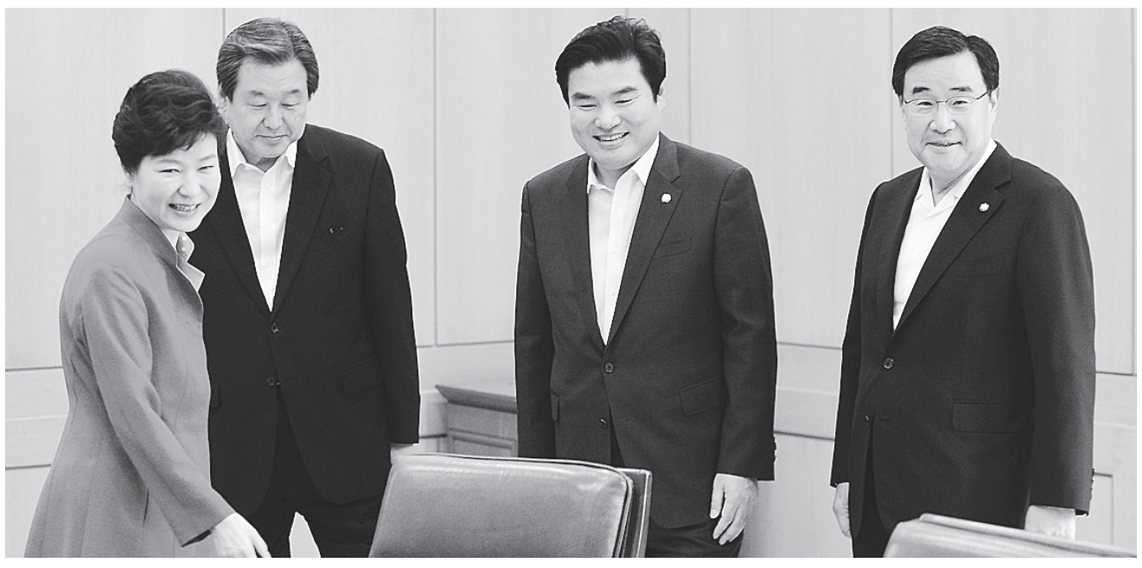
2015년 R&BD 전략	2016년 R&BD 전략
· 글로벌 메가트렌드, 산업가치사슬 및 · 글로벌 기업분석을 통한 테마 도출 · 민간 R&D 투자동향 분석	·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한중 FTA, 제조혁신 3.0, 온실가스감축 등) ·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융복합 핵심투자 대상 및 테마 발굴 · 전략-기술개발과제-예산 연계

내년도 산업부 R&DB 중점 투자방향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고령화 등 메가트렌드에 부응한 신산업 육성
· 소재부품, 시스템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한중 FTA 같은 신교역환경에 따른 산업경쟁력 제고
· 기후변화 등 글로벌 에너지 이슈 대응
→창의 · 소재부품 · 시스템 · 에너지 등 4대 산업분야 279개 기술개발테마 발굴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접견,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인 사면 기정사실화

靑 "국민정서 반하지 않는 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을 비롯해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폭넓게 실시하는 방안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사면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명분'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평소 소신으로 미뤄 볼 때 죄질과 복역 기간 등의 기준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폭넓게 검토하되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죄질과 복역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대상이 경제인이냐, 아니면 정치인이냐, 민생사범이냐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역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인 중에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우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죄질까지 따져본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한 예로 최태원 회장의 경우 2003년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받았지만 두 달여 만에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그러나 2008년 말부터 동생 최재원 부회장과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펀드투자금 450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명박 정부 때 사면이 없었다면 가중처벌감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정치인에 대해 어떤 기준이 마련될지도 관심이다. 홍사덕 전 의원이나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은 사면받으면 피선거권이 생겨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사면을 언급하면서 '대통합'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준이 높더라도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중 기자 zerg@

대통령 경고에도…정치인 장관은 총선 줄타기

김희정, 지난 주말 부산 연제구 행사 참가…황우여·유기준도 지역 챙기기

'정치인' 장관들이 청와대의 장관직 전념 경고에도 장관 일에 전념하지 않고 정무와 지역 챙기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내각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부분 내년 총선 출마 예정이어서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컸다. 실제로 지난 3월 취임한 유일호·유기준 장관의 경우 '10개월용'이란 지적을 받아왔으며 최경환 장관의 경우 7~8월 국회 복귀설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개인적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치인 장관들의 총선용 행보를 경계했다.

하지만 정치인 장관들의 행보는 이미 알게 모르게 총선쪽으로 기울어진 양상이다.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그는 박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이달 자신의 지역구(부산 연제구) 행사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지역 체육행사에 모습을 비쳤다.

송파구가 지역구인 유일호 장관 또한 3월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송파구청 체육행사, 석촌호수 축제 등에 얼굴을 내밀면서 지역관리에 힘쓰고 있다.

부산 서구를 연고로 둔 유기준 장관은 4월 부산 해양대, 5월 동아고 동문행사 등 한 달에 한 번씩 지역구로 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역시 3월 지역야구대회, 5월 인천 중앙초등학교 동문행사, 6월 인천 재래시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매주 지역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장관 중에선 가장 빈번한 스킨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우 바쁜 행보 탓에 지역구인 경북 경산-청도 행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양상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경산지식산업지구와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 특화단지 기공식에 참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

정치인 장관 지역구 행보 추이



최경환 경제부 총리	황우여 사회부 총리	김희정 여가부 장관	유일호 국토부 장관	유기준 해수부 장관
4월 경산지식산업지구 행사 참여	지역구 체육, 동문행사 참여, 매주 지역교회 예배 참석	주말 지역행사 참여, 총선 참여의사 뚜렷	주말 지역행사 참여, 총선 참여의사 뚜렷	해수부 정무와 연계한 월 1회 부산행

농산물 1년전보다 6.9%나 껑충

6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달과 비슷
전년 동월 기준 땐 11개월째 하락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과 같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농산물은 가뭄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6.9%나 뛰었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도매물가로, 통상 한두 달 뒤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1.80(2010년 100)으로 전월(101.83)과 비슷했다. 전년 동월 기준으로는 3.6% 떨어져 작년 8월 이후 11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3년부터 하향세를 보이다가 지난 4월(101.76)에는 2010년 11월(101.78)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0.9%)과 화학제품(0.4%)이 한 달 전에 비해 올랐으나, 농림수산품(-2.1%)이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농산품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9% 급등했다. 5월에도 8.4% 상승한 바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한강수영장 오늘 개장



16일 오후 개장을 하루 앞둔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이 개장 준비로 분주하다. 한강 수영장은 1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설계도면 중국 유출

中 5위권 업체 신차개발사업 수주한 국내업체서 넘겨

협력업체 퇴사자가 주도… 영업 피해액 700억대 추산

국내 대기업의 자동차 설계도면이 무더기로 유출돼 중국 업체의 신차 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백모(3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A사에 다니다 퇴사한 김씨는 이후 한 자동차 설계용역업체에 입사한 후 지난해 3~9월 다른 설계업체 B사에 파견 근무했다.

당시 현대·기아차그룹 전직 임원이 설립한 국내 업체인 B사는 중국 내 5위권인 한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개발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었다.

김씨는 이 기간 중국 신차 개발사업 설계 부문을 담당하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한 직장 동료 9명으로부터 이메일과 메신저 등으로 부품 설계도면 등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 130여건을 입수, 업무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씨에게 제공된 도면은 협력업체가 차량 부품 등의 생산 하도급을 수주하면서 현대·기아차로부터 받은 것 또는 설계용역 업체가 현대·기아차의 의뢰로 작성한 차량 부품 도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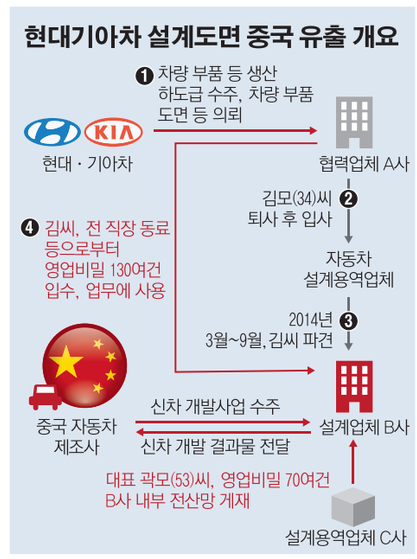
하도급업체는 수주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폐기해야 하지만, 이를 갖고 있다가 김씨에게 넘겨준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협력업체 보안감사 과정에서 A사 직원이 김씨에게 영업비밀을 보낸 흔적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도면 유출에 중국 업체가 관여했거나 대가성 금품이 오갔을 개연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김씨에게 도면을 제공한 이들은 "단순히 친분관계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다. 도면 유출에 가담한 업체는 또 있었다. B사의 설계용역업체 C사 대표 곽모(53·구속)씨는 작년 2~10월 자신이 갖고 있던 현대·기아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70여건을 B사의 내부 전산망에 올려 중국 신차 개발사업 담당자들과 공유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영업비밀에는 당시까지 현대·기아차에서 개발 중이던 신차를 비롯해 수십개 차종의 설계도면이 포함됐다.



현대·기아차는 도면이 생산에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유출이 발생한 2014년을 기점으로 3년간 영업상 피해액이 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설계기술 등 중요 영업비밀이 국외로 유출되면서 사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국부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런 영업비밀 유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현대차 파견법 위헌심판 '5년 장기미제'

2010년이후 공개변론 사건 중 유일하게 결론 안내…법적 분쟁 계속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 지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면 5년이 지난 사건이다.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34건이다.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1건이고, 이 중 20건은 선고가 이뤄졌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180일이 지난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두 건이 병합된 이 사건은 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고 있는 동안 현대차 파견근로자들은 꾸준히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파견근로자 최병승씨가 낸 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을 인정했던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2년 넘게 근무한 4명의 파견 근로자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다시 한 번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규정으로 인해 기업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반면 이 법률 이해관계인인 고용노동부 측은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고용의제 효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라야 발생하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좌영길 기자 jyg97@

환경공단 발주공사 담합 11개 건설사 34억 과징금

응진군 하수도 정비 사업 등 환경공단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건설사들 간 담합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응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등 6건 공사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정한 삼호 등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응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호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개 사업자는 삼호가 경쟁 없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 및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호는 98.5%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12월 공고한 '청주시 음식물 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도 벽산엔지니어링과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합의해 벽산엔지니어링이 낙찰 받도록 유도했다.

환경공단이 2010년 8월에 공고한 '새만금유역합류식 하수도월류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고려개발과 한라산업개발은 설계부문에서는 경쟁을 하되, 고려개발이 98.8%, 한라산업개발이 98.75%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환경공단이 7월과 9월에 각각 진행한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과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도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사전 합의해 한라산업개발과 효성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라산업개발은 합의의 대가로 벽산엔지니어링에 설계비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효성엔지니어링은 서희건설의 들러리용 설계도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영 기자 sypark@

상반기 신입사원 평균 스펙 '학점 3.4·토익 731'

사람인 조사, 자격증 평균 2개 보유

기업 절반이상 "영어능력 반영 안해"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의 평균 스펙은 학점 3.4점, 자격증 2개, 토익 731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은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 121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합격 스펙 및 평가방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신입사원의 학점은 '3.0~3.3점 미만'(38%), '3.3~3.6점 미만'(21.5%), '3.6~3.9점 미만'(19.8%), '3.0 미만'(9.9%) 등의 순으로, 평균 3.4점(4.5점 만점)이었다.

채용 시 학점에 제한을 둔 기업은 53.7%였고, 이때 평균 3.1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격증을 보유한 신입사원은 평균 45%로, 이들의 자격증 개수는 평균 2개였다. 보유 자격증 종류는 '전공, 직무 관련 자격증'(65.7%,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OA 관련 자격증'(32.4%), 'IT 관련 자격증'(25.7%),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12.4%) 등이 있었다.

실제 채용 시 자격증을 요구한 기업은 49.6%였고, '필수 조건'(33.3%)보다는 '우대 조건'(66.7%)인 경우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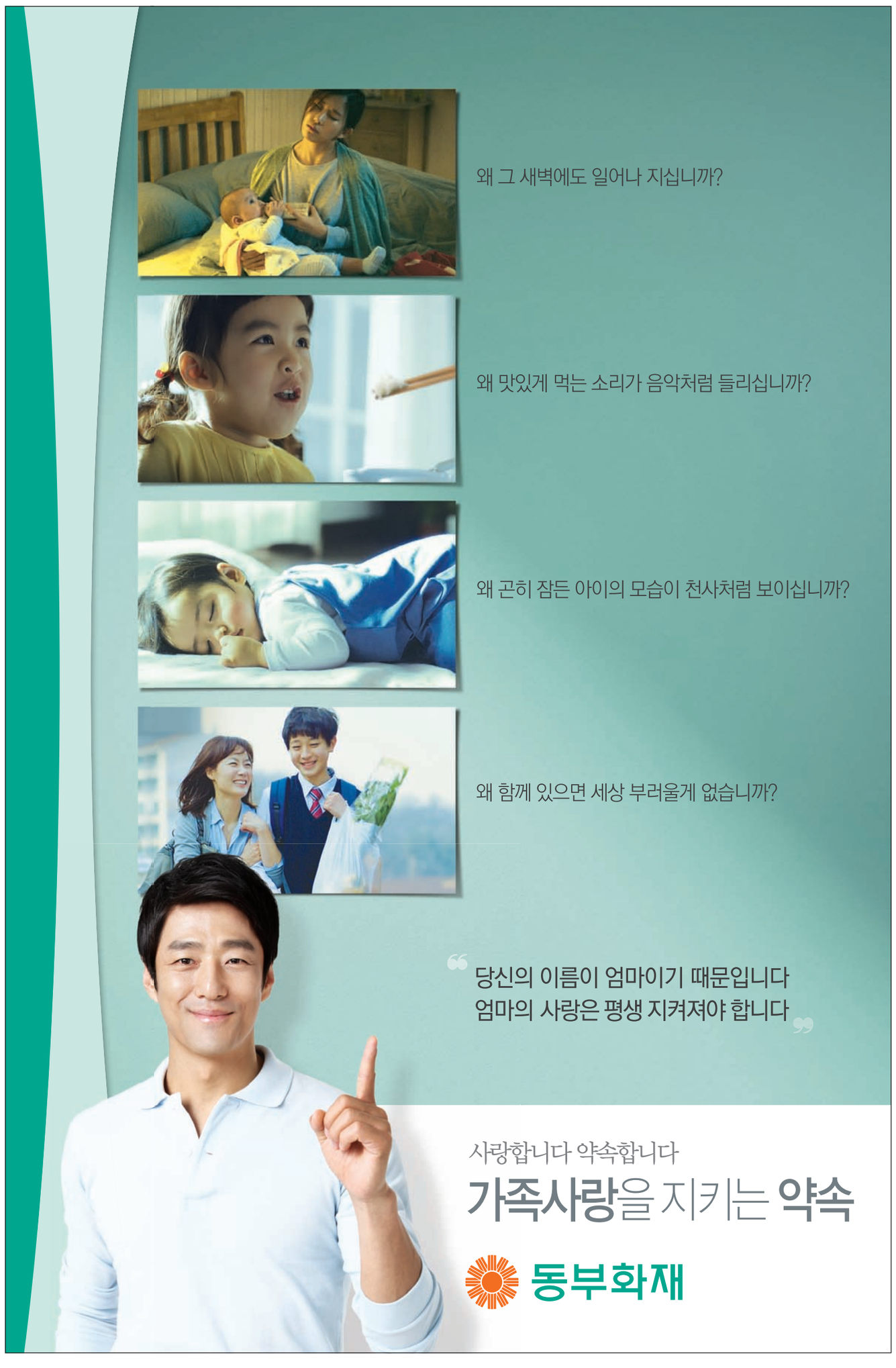
토익 성적을 보유한 신입사원이 있다는 기업은 47.1%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731점이었다. 영어 말하기 성적 소지자가 있는 경우는 43.8%였다.

그러나 지원자의 영어 능력이 채용 당락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는 52.9%가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점수가 높을수록 우대'는 24%, '일정 점수만 넘기면 동일하게 평가'는 23.1%였다. 유혜은 기자 euna@

'보석들의 향연' 주얼리페어



2015 한국주얼리페어(Jewelry Fair Korea 2015)가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이 전시된 보석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국내 주요 보석·시계 유관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빗장 풀린 이란… PF시장도 열린다

핵협상 타결로 경제제재 해제
수출입銀 '종합진출전략' 마련
내달 테헤란 병원 3억~4억달러
시중銀 진출기업 상대 마케팅

금융권이 이란 핵협상 타결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PF자금·무역결제 등 금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을 돕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중은행들도 신규 금융 수요에 대비해 해외영업 강화에 나섰다.

17일 수출입은행은 이란을 중점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고 분야별·단계별 금융지원 방안을 담은'이란종합진출전략'을 마련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란 제재 완화 단계에 따라 '의료→인프라→석유·가스·플랜트' 분야로 금융지원 대상을 점차 넓히고, 전대금융과 무역금융을 재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단계로 이란 당국과 이르면 8월 중 이란 테헤란 병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총 지원 금액은 3~4억달러로 1000개 규모의 병상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병원 건설에서 의료진 파견까지 인프라와 의료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향후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과 금융지원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도 이란 경제·금융 제재 해제에 대비해 물밑작업을 펼친다.

은행권 관계자는"이란계 은행과 계좌개설 관련 동의를 받고, 이란에 진출하는 기업을 상대로 마케팅 작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기업의 이란 진출 여부 등을 파악해 PF 수요를 확인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향후 결제 서비스나 금융지원 등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사업부서에서 이란 시장 리서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금융 수혜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금융 제재 해제는 연말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와 맞물려 빨라도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란 금융시스템이 워낙 낙후됐고,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고려할 게 많다"며"현재는 이란 관련 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농협은행 글로벌본드 3억달러 발행

NH농협은행은 3억달러(약 3447억원) 규모 글로벌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3억달러에 이어 두번째이다.

농협은행은 그리스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들의 보수 성향 등으로 발행시기 예측이 어려웠으나, 그리스 협상 타결 이후 변동성이 완화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성공리에 글로벌본드 발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채권의 발행 금리는 5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5T)에 1.2%(120bp)를 가산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쿠폰금리 2.875%다.

조달된 자금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및 영업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투자기관 형태는 자산운용사 40%, 은행 21%, 보험 30%, 기타 9% 등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91%, 유럽 9%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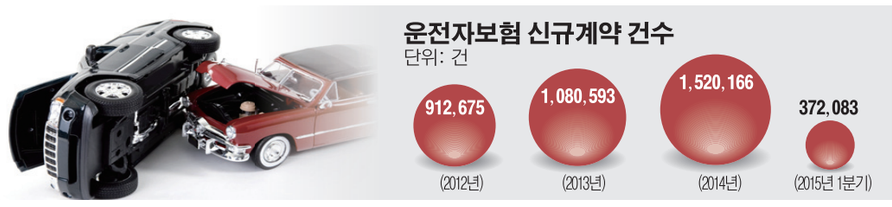
김우람 기자 hura@

농협 '광복70년815예적금' 1주일 만에 3조 돌파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지난달 5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광복70년815예적금'의 판매고가 3조원을 돌파했다. 광복70년815예적금은 고객의 예금 가입 시마다 농협에서 700원씩 기금을 출연해 국가보훈처의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을 후원하는 공익 상품이다. 출시 1주일 만에 판매 5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30일 만에 3조원을 기록했다. 광복70년815예적금은 다음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며, 전국 농·축협과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사진제공 NH농협은행



'운전자보험' 2년새 66% 껑충
손보사 판매 확대 '가속페달'

형사합의·변호사·입원비용 보장
손해율 높은 車보험 보완 효과
저축·자녀학자금 등 기능 추가
올 상반기에만 7개 신상품 출시

운전자보험의 신계약 건수가 꾸준히 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상품 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2년 91만2675건에서 2014년 152만166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새 무려 66.6%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증가세를 보이며 1분기까지 37만2083건의 신계약이 이뤄졌다.

반면 자동차보험 계약건수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자동차보험은 지난 2012년 1761만7999건에서 2014년 1877만4908건으로 6.6% 증가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입원일당 등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자동차보험을 보조하는 개념의 상품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보완해 주는 효자상품이기도 하다. 실제로 운전자보험 손해율은 평균 50%대 수준에 머무르며 수익을 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이 높은 손해율로 손보업계의 근심거리였는데 손해율 관리가 비교적 쉬운 운전자보험의 판매 증가로 보완 효과를 보고 있다"며"손보업계 가운데 자동차보험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의 경우 운전자보험 인기로 수익 측면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운전자보험의 인기는 교통사고 법정분쟁이 증가한 데다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손보사들은 신상품 출시 등으로 운전자보험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7개에 달하는 신상품이 출시됐다. 특히 흥국화재, 메리츠화재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장을 탑재하고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손해율 관리가 비교적 손쉬운 운전자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등 손보업계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최근 장기보험의 저축기능을 활용해 보험금을 늘리고 만기환급 시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적립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lmj@

P2P대출 3000억 시장…중개업체 100개 이상

중금리로 2금융권·대부업보다 선호

P2P대출(개인간 대출 중개)시장 규모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 중인 P2P대출 주요 기업의 총 누적대출 규모는 약 2700억원으로 나머지 기업들의 대출규모를 추산하면 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P2P대출 중개업체가 100여개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금융권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P2P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정보력이 높은 30대 이용고객들이 2금융권이나 대부업에서의 대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대출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빌려주고자 하는 공급자를 온라인상에서 연결하는 대출 중개업을 말한다.

가장 먼저 P2P대출에 뛰어든 머니옥션의 경우 현재까지 약 2386억원의 모집 신청을 받았다.

업계가 추산하는 P2P대출 기업은 약 100여개로 이들의 대출규모를 합하면 3000억원을 넘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P2P대출 사업규모가 늘어나는 데는 자금 수요자나 투자자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P2P대출 중개업체 규모

회사명	서비스 개시	누적 대출액
머니옥션	2007년 5월	2386억원
팝펀딩	2007년	256억3975만원
8퍼센트	2014년 12월	20억6400만원
어니스트펀드(비모)	2015년 6월	1억700만원
렌딧	2015년 4월	7억8712만원
빌리	2015년 7월	서비스 시작 전
펀다	2015년 4월	1억8440만원
테라펀딩	2014년 12월	46억3220만원
키핑펀드	2014년	조회 시스템 미비
피플펀드	베타서비스 중	베타서비스 중

일각에서는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P2P중개만의 특성을 고려해 위험요소를 낮추기 위해 P2P대출 전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손보사, 두바이 영업 확대…중동·阿 교두보로

삼성화재·코리안리 에이전시로 전환

손보사들이 중동·아프리카 지역 보험시장 공략을 위해 거점시장인 두바이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사무소를 영업이 가능한 언더라이팅 에이전시로 전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두바이 현지 사무소를 에이전시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기존 사무소에서 언더라이팅 일부 영업이 가능한 에이전시로의 전환을 이사회에서 결정됐다"며"그러나 에이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두바이 현지 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안리도 올해 초 두바이 현지 사무소를 두바이 언더라이팅 에이전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코리안리는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에이전시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손보사들이 두바이에서 영업을 강화하려는 것은 두바이가 중동은 물론 아프리카로 진입하는 거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아프리카지역은 전세계 보험산업의 신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두바이 등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슬람보험의 타카풀이 70% 이상 점유하는 최대 시장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우 성장 잠재력이 크다. 최대 경제대국인 나이지리아의 경우 2000년 450만명에 불과하던 중산층이 지난해 말 1500만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2030년에는 400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닳은 음악보다
다른 음악

익숙한 것이 아닌 생소한 것
비슷한 것이 아닌 남다른 것
모든 혁신은 그런 갈증에서 시작된다



총 336팀의 도전과 3만여 네티즌 투표, 전문위원 심사 끝에 **최종 6팀이 라이브 결선무대에 오릅니다**

GREAT RoKie Project 2015

신한카드 루키 프로젝트

신한카드와 고객이 함께 인디뮤지션의 진정성을 공감하고
가능성을 키워가는 신인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총 상금 5천만원, 신한카드 Stage@펜타포트 공연 및 앨범제작 지원

라이브 결선 콘서트
2015. 7. 24 (금) 홍대 무브홀
*청중평가단 참가 신청: 7/10(금)~16(목) @네이버뮤직 뮤지션리그

시장점유율 1위 카드사

BIG to GREAT 신한카드

벼랑끝 팬택 기사회생 옵티스와 M&A 체결

법원, 합의 계약서 심사 후 허가 이달까지 대금 납부하면 완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 했던 팬택이 17일 옵티스컨소시엄과 M&A(인수합병) 본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주요 쟁점사항에서 옵티스와 팬택이 본계약 체결에 합의하면서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도 허가로 가닥을 잡고 있다. 법원의 허가가 결정되면 옵티스와 팬택은 본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20억원의 계약금을 납부한다. 이달 말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인수대금 전액을 납부하면 사실상 인수 절차는 마무리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종적인 결정은 전담 재판부에서 심사숙고 해 결정하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팬택의 전담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다. 윤 수석부장판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허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윤 수석부장판사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 업체로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회생절차를 신속히 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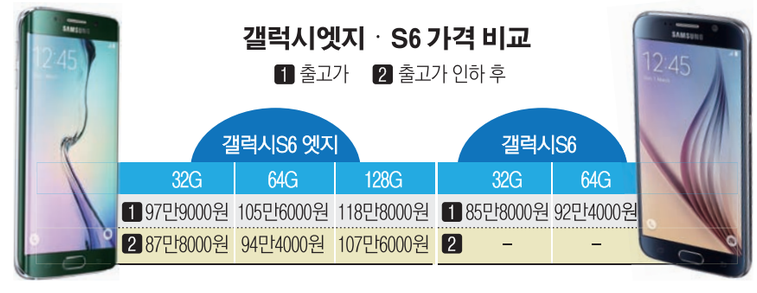
팬택 상암 사옥.

인수주체로 나선 옵티스 역시 의지가 강하다. 미국계 투자회사 이엠피인프라(EMP INPRA)와 컨소시엄을 맺고, 재무적 투자자(FI)를 모으고 있다. 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회장으로 영입했다. 여기에 국내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쏠리드가 옵티스가 이끄는 컨소시엄에 전격 참여했다. 옵티스는 운영자금을 포함한 1500억원 수준의 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과 조율중이다.

이번 본계약 체결에서 옵티스는 팬택 인수자금으로 최대 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옵티스는 시설인수와 고용승계도 더 적극적이다. 또 김포공장 부지와 시설 중 휴대전화 기판 생산장비 등 공장시설은 매입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고용승계는 기존 연구개발(R&D) 인력에 추가적으로 제조인력도 승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이통3사 '갤S6 엣지' 10만원 내린다

수요 기대 이상으로 높아… 출고가 내려 판매 촉진 나서
까다로운 공정에 공급차질… 삼성 2분기 실적에도 영향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엣지' 가격이 출시 3개월 만에 전격 인하된다. 일반 모델을 제외한 엣지 모델의 출고가만 낮아지는 것으로, 엣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가격을 내려 판매를 확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이날부터 갤럭시S6 엣지 출고가를 인하한다. 32G, 64G, 128G 모델의 가격은 기존 97만9000원, 105만6000원, 118만8000원에서 각각 87만8000원, 94만4000원, 107만6000원으로 약 10만원씩 떨어진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전략폰의 출고가를 출시 3개월만에 내리는 것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엣지에 대한 수요가 기대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가격을 내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10일 갤럭시S6·엣지를 글로벌 동시 출시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일반형과 엣지형의 판매 비율을 8대 2 수준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엣지 모델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다. 여기에 까다로운 공정으로 인한 낮은 수율이 겹치면서 출시 초반 갤럭시S6 엣지 공급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공급차질은 올 2분기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문의 기대 이하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업계는 올 3분기에도 일반 모델보다 엣지 모델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엣지 디스플레이 수율을 크게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전격적인 갤럭시S6 엣지 출고가 인하를 통해 부진한 스마트폰 매출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고가 인하로 일반형과 엣지형 스마트폰의 가격차는 약 2만원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가 공개되는 만큼, 새 제품 출시 전 재고를 소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초 국내 이통사들은 갤럭시S6·엣지 출시를 앞두고 전작 '갤럭시S5'의 출고가를 인하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음 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 플러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gutjy@

윤곽 드러내는 삼성 '기어A' 메탈에 엑시노스 3472 탑재

삼성전자의 차세대 원형 스마트워치 '기어A(코드명 오르비스)'의 디자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개발자들에게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DK)를 통해 기어A의 사양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코드명 오르비스로 알려진 기어A는 원형 디자인, 메탈 프레임, 메탈 크라운(용두) 등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디스플레이에 통합된 회전식 베젤 링을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탐색할 수 있다.

기어A의 하드웨어 사양은 1.2GHz 엑시노스3472 듀얼코어 프로세서, 450MHz 말리-400 MP4 GPU, 768MB 램, 4GB 내장 메모리, 250mAh 배터리를 탑재한다. 또 가속계센서, 자이로센서, 심박 박동 모니터, 압력센서, 자기센서가 제공되며 와이파이, GPS, 휴대 라디오 등의 연결 옵션을 제공할 전망이다.

헤드셋과 같은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해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설치된 앱을 통해 알림을 보거나 삭제할 수 있고 앱을 연결된 기기에서 열 수도 있다.

운영체제(OS)는 원형 스크린에 특화된 새로운 UX가 포함된 타이젠 OS로 구동된다. 디스플레이는 1.65인치(42mm) 원형 디스플레이에 픽셀밀도가 305ppi인 360X360픽셀의 해상도를 제공하는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전망이다. 이는 지금까지 출시된 삼성 스마트워치 가운데 해상도가 가장 높다.

권태성 기자 tskwon@

SK텔레콤 'MWC상하이'서 "5G기술 선도"



SK텔레콤은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5G 리더십(5G Leadership in the Asia Pacific Region)' 콘퍼런스에서 5G 핵심기술과 네트워크 구조 혁신을 담은 아키텍처 발표를 통해 5G 기술 리더십을 입증했다. 최진성 SK텔레콤 CTO(최고기술경영자)는 5G 시대가 도래하면 고품질 · 대용량 데이터 초고속 전송뿐만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고객 경험과 네트워크의 지능적 ·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한화갤러리아 "유커 20만명 유치"

〈루상그룹 직원〉

황용득 대표, 루상그룹 유치 활동



황용득(사진) 한화갤러리아 대표가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자마자 중국 루상그룹 직원 20만명을 관광객으로 유치키로 했다.

황 대표는 17일 "중국 여행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루상그룹 직원 20만명의 연수와 인센티브 관광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루상그룹은 산둥성 내 유통·호텔 분야에서 점포 수 규모로 1위인 국유 기업으로 중국 내에서 백화점·쇼핑몰 70여곳, 대형마트 130여곳을 운영하는 중국 전체 순위 5위 유통기업이다. 매년 그룹 직원의 외국 연수·인센티브 관광을 시행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달 말 루상그룹의 산둥여행사, 톈진시 국유기업인 톈진해태그룹의 톈진해태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루상그룹의 직원 연수·인센티브 관광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1억명에 달하는 산둥성 내 잠재적 한국관광객 유치로 이어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특히 황 대표는 "여의도와 한강 지역을 묶은 패키지 상품으로 중국의 단체 관광객과 개별 관광객을 별도로 공략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여의도와 그 주변을 선진국형 관광도시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갤러리아는 63빌딩 면세점을 바탕으로 서울 영등포·동작구에 내년에 950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며, 연평균 13.8% 성장을 고려할 때 5년간 총 6300억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황 대표는 면세점 개점 준비와 관련 "현재 인테리어 공사·상품기획·보세구역·마케팅 등 부문별 운영 계획이 구체화하는 단계로 9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한화갤러리아는 63빌딩 면세점 개점과 함께 온라인 면세점도 열 계획이다. 모바일 앱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갤러리아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하도록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경제인 특사 청원 낸 中企단체 "한국경제에 헌신할 기회 줘야"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17일 법무부에 '포용적 경제인 특별사면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원서 제출은 광복 70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사회통합을 위해 기업인들이 과오를 씻고, 다시 한 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청원서를 통해 "청년 일자리 부족, 내수·수출부진 등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기업인들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그 이익을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과오를 범한 경제인들이 다시금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이해와 포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경제인들도 사회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앞으로도 준법경영과 기업윤리의 숭고한 가치를 가슴속에 새기고 이를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유 기자 thec98@

非게임서 새 먹거리 찾는 NHN엔터테인먼트

간편결제 이어 CCTV사업 뛰어들어

IP카메라 '토스트캠' 내달 출시 기존보다 용량 크고 고해상도

NHN엔터테인먼트가 CCTV시장에 뛰어들며 사업영역 확장에 나섰다. 간편결제에 이어 주력산업이었던 게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16일 경기도 판교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IP 카메라 '토스트캠'을 내달 초 출시한다고 밝혔다.

토스트캠은 아날로그 방식의 CCTV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와이파이(Wi-Fi) 기반의 IP카메라다. 기존 CCTV보다 저장용량이 크고 고해상도 화질,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력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된 토스트 캠에서 촬영된 영상을 이용자는 언제 어디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트캠은 1년 내내 촬영한 영상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타임라인 기능, 도난·파손·분실되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저장, 소리·움직임 등 특정영역 감지 등의 기능을 담았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9월 19일부터 개원하는 어린이집에서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보호자와 교직원의 동의아래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백도민 NHN엔터테인먼트 IT서비스센터장은 "게임뿐만 아니라 IT기술 기반으로 가치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NHN엔터테인먼트가 추진하고 있는 비게임 사업은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코'를 통해 가속화 돼왔다. 페이코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다양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내달 1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온라인 가맹점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다양한 신사업 발굴을 통해 종합 IT기반 서비스 업체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메르스에… 제약사 처방실적 악화

지난달 원외처방액 16% 감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여파가 제약회사들의 처방실적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제약사 원외처방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데다 처방량 또한 줄어든 것이다.

17일 제약업계 및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등에 따르면 6월 전체 제약사 원외처방액은 756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6월은 영업일수가 22일, 지난해 6월은 19일로 영업일수를 보정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줄었다. 지난달 원외처방량 역시 같은 기간 4.2% 줄어들었지만, 영업일수를 보정할 경우 17.2%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지난달 국내 원외처방액 상위 제약사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5.7%)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에스티는 전년 동월 대비 -16.5%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CJ헬스케어 10.7%, 대웅제약은 8.8%, 일동제약은 8.1%, 한독은 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한양행(-5.4%)·한미약품(-4.2%)·종근당(-0.8%) 등의 순이었다.

메르스 사태로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전염 우려로 제약사 영업직원들에게 병원 출입 자제령까지 내려지면서 의약품 처방액이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의 메르스 감염의 확산으로 지난달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실제로 의약품 처방실적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벤처 활성화한다더니… 현실과 동떨어진 '학사 병역특례'

자금 열악… 고졸 채용 조건 부담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벤처기업들이 필요한 학사 병역특례 제도는 현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학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 받으려면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1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규정이 영세한 벤처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벤처기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에서 모바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A벤처기업은 지난달 말 학사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신청하려다 포기했다. 학사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받기 위한 지정업체 선정 조건이 문제가 됐다. 해당 기업이 특성화·마이스터고와 3자협약을 체결하고, 1명 이상의 고졸 학생을 채용해야 하는 조건인데, 자금사정이 열악한 벤처기업들 입장에선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서울 구로구에서 플랫폼 관련 사업을 하는 B벤처기업도 같은 이유로 학사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취소했다. 고졸 인력을 찾지 못해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완전히 포기했다.

현재 병역특례 제도는 학사 이하의 산업기능요원과 석사 이상의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뉜다. 산업기능요원은 추천권자인 중소기업청이 신청기업들을 10개로 등급을 나눠 우선 배정 순위를 정하며 제조업, 통신기기제조업, 정보처리관련업 등 업종별로도 구분한다.

문제는 우선 배정을 위한 지정업체 선정 조건이다. 현행 병역법상 학사 산업기능요원을 1순위로 배정받기 위해선 특성화·마이스터고와의 3자협약 체결과 함께 고졸 채용이 전제돼야 한다. 2순위 이하로 떨어지면 사실상 학사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는 건 힘들다는 게 벤처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



SK텔레콤이 지난 4월에 출시한 'T키즈폰 준2'. 사진제공 SK텔레콤

자녀 안전 지킴이… 모바일 가정통신문…

'키즈 스마트' 아시나요

SKT 'T키즈폰' LGU+ '키즈온'
위급 상황시 자녀위치 확인 가능
어린이집·유치원 모바일 알림장
다음카카오 '키즈노트'도 큰 인기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어린이 전용 스마트기기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엔젤산업' 시장 규모가 최근 10년 새 10배 이상 성장했고, 어린이용 모바일 앱의 숫자도 지난 2013년 4700여개에서 지난해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어린이 안전이나 교육을 위한 스마트 기기 판매량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중소기업 인포마크와 함께 출시한 'T키즈폰 준' 시리즈를 들 수 있다.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인 'T키즈폰 준1'은 SK텔레콤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위급시 알람을 주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이 제품은 2013년 말 출시 1년 만에 무려 17만 가입자를 확보했고, 올 4월 기능을 더욱 강화시킨 'T키즈폰 준2'를 전격 출시했다. SK텔레콤 측은 T키즈폰 시리즈와 '키즈온'이라는 또 다른 어린이용 스마트기기 모두 합쳐 6월 말 기준으로 20만대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4~8세 아동을 위한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인 '유플러스 키즈 테그'와 '유플러스 키즈온'을 선보였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모듈을 내장한 키즈 테그는 미아 방지용 팔찌로, 아이가 부모에게서 30m 이상 떨어지면 경고음이 울린다. 키즈 온은 제품 전면의 버튼을 길게 누르면 사전에 저장된 부모의 스마트폰에 바로 연결되면서 자녀의 정확한 위치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음카카오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에 서비스하고 있는 스마트 알림장 앱인 '키즈노트'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키즈노트는 별도의 전용 기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아이들의 일상과 식단, 사진, 준비물 등을 앱에 올려두면 학부모는 PC나 스마트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 앱은 출시 직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키즈노트를 개발한 벤처기업 '키즈노트'를 다음카카오가 아예 인수해 자회사로 두고 있다.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다음카카오 인수 이후 키즈노트에 가입한 영유아 보육기관은 지난해보다 62%가량 증가했다. 키즈노트에 가입한 어린이집·유치원은 지난 2월 기준으로 2만5000곳을 넘어섰다. 학부모 이용자도 늘고 있는데, 지난 3월 기준 이용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00% 이상 늘어난 50만명을 돌파했다.

박성제 기자 psj@

이마트 "여름패션 저렴하게 장만하세요"



이마트가 16일부터 29일까지 개점 이래 최대인 1000억원 규모의 여름 패션 창고 대방출전으로 메르스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소비 포문을 연다. 이번 행사에선 지난 6월부터 가격 인하를 진행한 데이즈를 추가로 최대 30% 인하해 정상가 대비 최대 6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더불어 반바지와 반팔티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2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여름 패션 창고 대방출전이 열린 가운데 고객들이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백화점·마트 '메르스 직격탄'… 2분기 실적 암울

영업익 최대 10% 이상 감소 전망… 편의점, 담배판매 증가 등으로 '나홀로 호황'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불황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까지 발목을 잡아 역신장세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에 편의점은 나홀로 호황이다. 1~2인 가구와 담배 판매 증가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2분기 실적은 역신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업이익이 최소 3% 수준에서 최대 10%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2분기 영업이익이 평균 12.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도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2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9%, 1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대형마트 실적 전망도 암울하다. KDB대우증권은 이마트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별도 기준 7.7%, 연결 기준 11.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준기 연구원은 "올 들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한 동일점포 매출은 6월 메르스 영향으로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3분기부터는 메르스 영향의 소멸로 영업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실적 개선세가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화점, 대형마트와 달리 편의점은 2분기에 승승장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리츠종금증권은 BGF리테일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41% 증가한 544억원, 매출액은 같은 기간 28.9% 늘어난 1조95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주연 연구원은 "담배가격 인상 효과가 이어지는 데다 담배 판매 증가율도 올 들어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또 메르스 여파로 편의점 이용이 늘었고 가정의 주류 소비문화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 증가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1~2인 가구 증가세 속에서 배달 서비스 확대 등 생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해 추가적인 고객 확보에도 나서 편의점의 실적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선애 기자 lsa@

승자도 활짝 웃지 못한 면세점 전쟁



내정설·결과유출설 등 뒷말 무성
선정기업들 '불똥 튈라' 촉각 곤두
관세청도 모호한 선정기준 뭇매

결국 승자도 웃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재벌가 안배설, 불투명한 평가, 사전 정보유출, 그리고 뒷북 조사까지. 삼성을 비롯해 롯데, SK, 신세계 등 내로라하는 국내 재벌가가 총출동해 남긴 이번 면세점 전쟁의 상흔들이다.

입찰 초기부터 특정 기업 내정설과 관세청 로비설이 난무하며 후폭풍을 걱정했던 언론과 업계의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입찰 방식과 심사의 공정성 모두 우려했던 대로다.

관세청은 면세점 선정 결과 발표 당시 선정 정보 사전 유출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심사위원들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됐고 발표 당일 오후 4시쯤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유출 의혹은 말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관세청이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CCTV와 전화통화 기록 등을 전부 뒤지고 있다. 이번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막지 못한 대가다.

승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이기긴 했지만 쏟아지는 뒷말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과 나흘 만에 2배 이상 주가가 뛴 한화갤러리아는 만의 하나 사전 유출설의 희생양이 될까 걱정스러운 눈치다. 그룹에서는 자신들과 관련된 기사마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HDC신라면세점)은 선정 발표 이후에도 몸을 잔뜩 낮추는 모양새다. 입찰 초기부터 파다했던 근거없는 '내정설'이 승리 후에도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지난 10일 관세청 심사가 한창인 오후 1시쯤 기자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오후 4시쯤 윤곽이 잡힐 것이라던 심사 결과를 어디쯤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였다. 데스크에게 곧바로 보고했지만 주식시장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 더 이상은 입밖에 꺼내지 않았다. 물론 선정 결과는 통화 내용과 똑같았고, 해당 기업의 주가는 이미 가격제한폭까지 올라갔다. 각종 설이 난무하면 이기고도 찝찝한 기분이 든다. 시쳇말로 연장 없이 맨손으로 맞짱을 뜨자고 했던 룰이 깨져 이긴 자도 명예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결과는 관세청이 자초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혜성 사업이 아니라 한국 관광산업을 책임질 중요한 먹거리라는 점을 설득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 그렇고, 평가점수의 일부가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점도 그렇다. 더 심각한 건 이래놓고도 모든 기업의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뻔뻔함에 있다고 시민단체 등은 지적한다.

패자는 더 씁쓸하다.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지만 11~12월 특허가 만료된 3군데 면세점의 입찰이 기다리고 있다며 그나마 패자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스스로 위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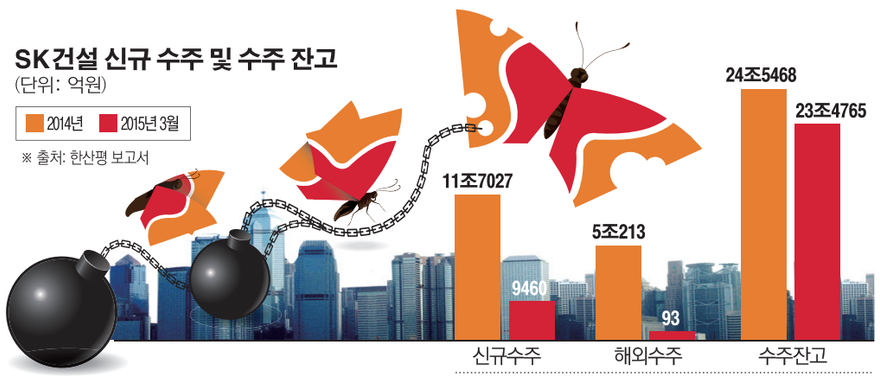
과연 그럴까? 업계에선 아무리 업체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정부라 하더라도 수천명의 고용 인원과 그동안 여행업계와 구축한 탄탄한 사업 네트워크 등을 순식간에 내팽개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기존 업체가 유리한 게임이라고들 한다. 인천공항 면세점처럼 돈을 걸고 베팅하는 경쟁입찰이 아닌 바에야 경쟁업체로 교체되기는 힘들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윤철규 기자 yoonck@



SK건설 1000억 회사채 발행 잘될까

주력 해외플랜트 원가 상승 악재
1분기 신규수주 9460억 기대이하
재무개선 위해 U-사업부 팔았지만
신용 전망 '부정적' 하향조정 잇따라
계열사 물량에 사업안정성은 유지



SK건설이 1000억원 회사채수요 예측을 앞두고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주력공종인 해외공사의 원가율 상승과 저조한 실적 때문이다.

17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에 따르면 SK건설의 신용등급은 'A'를 유지했지만 등급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됐다. 지난 4월 SK건설 등급전망을 하향한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이어 한신평도 등급전망을 하향한 것이다. 이 건설사는 지난달 29일 신용회복 등급 전망 회복과 재무개선을 위해 U-사업부 매각을 했지만 결국 '안정적' 등급전망은 받지 못했다.

U-사업부는 지난해 매출 5700억원,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113억원으로 각각 회사 전체 매출액의 6.7%, 5.5%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알짜부서다. 이 부서 매각으로 SK건설은 1600억원의 매각대금 유입과 1400억원의 매각 차익이 발생해 1분기 말 부채비율 331%에서 40%p 가량의 부채비율이 개선돼 26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공사의 원가상승에 의한 수익성 회복 지연과 저조한 신규수주 기록으로 결국 신용등급 전망 회복은 실패했다.

플랜트 사업부문은 지난해 실적 기준 전체 매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 회사의 주력 공종이다. 해외 사업이 대다수인 1분기 해외플랜트 사업의 원가율은 올 1분기 109.4%로 전년대비 8%p 증가했다. 해외플랜트 매출총이익 역시 49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플랜트를 비롯한 토목, 건축 등 해외 건설 원가율 역시 106.3%을 기록하며 전년(101.4%)대비 악화됐다.

이외에 지난해 신규 수주는 국내 6조7000억원, 해외 5조원 총 11조7000억원을 달성했지만 올 1분기 신규수주는 9460억원으로 약 1조원에 그쳤다. 이 중 해외수주는 93억원으로 전체 0.98%에 그쳤다. 지난해 신규 수주의 42%가 해외수주에서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1분기 실적만으로 올해 수주실적을 예측하기는 이르지만 현재 중동 발주 물량의 감소 등으로 평균 수준의 신규수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한신평 관계자는 "SK건설은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데 이 부분에서 수익이 안나오다 보니 향후 수익 역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다만 신규수주는 적지만 1분기 수주잔고가 약 23조4700억원으로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고 SK계열 물량도 꾸준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사업안정성은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SK건설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익은 지난해 239억원 적자에서 19억원 흑자로 전환하는 등 실적은 점점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열두번째 이야기

누구나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창의적이라는 말을 듣진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기 때문이죠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의 공포를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DOOSAN


라이트형제의 첫 비행 장소

서울 오피스타운 중심이동
마곡·상암·성수·문정으로

상암DMC, IT·미디어산업의 메카로
마곡, LG 등 대기업 40곳 둥지 마련
강남 가기 편한 성수동·문정지구도
마곡 프라이빗타워II 등 공급 활발


마곡나루역
프라이빗타워II 투시도

마곡 · 상암 · 문정 · 성수 주요 공급 오피스

위치(단지명)	시공사
마곡지구 C3-3블록 (마곡나루역 프라이빗 타워II)	한양산업개발
문정지구 7블록 (H비즈니스파크)	현대건설
문정지구 6블록 (H비즈니스파크)	현대건설
문정지구 특별계획구역 4-3블록 (문정역 대명벨리온)	대명건설
성동구 성수동1가 656-591외 1필지 (서울숲 에이타워)	포스코 A&C

서울의 업무 중심지가 바뀌고 있다. 새로 조성되는 마곡·상암·성수 등 새로 조성되는 업무지구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등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무지구의 이동으로 기존 여의도, 강남, 종로이던 업무 중심지가 마곡, 상암, 성수, 문정 등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단연 눈에 띄는 곳은 상암 DMC다. 이곳은 국내 IT·미디어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곳으로 서울시가 10여년 전부터 국내 IT·미디어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고 있는 곳이다. MBC글로벌미디어센터, YTN, SBS프리즘타워, KBS미디어센터, 종합편성채널 방송국 등이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또 CJ E&M, LG CNS, LG U+ 등 IT·미디어 관련 수십개 기업도 이곳에 신사옥을 지어 자리를 잡았다.

또한 마곡지구도 국내 대기업 40여개의 업체를 포함한 총 60여개의 기업체 입주가 확정됐으며 이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롯데컨소시엄, 대우조선해양 등 다양한 대기업이 입주 예정이다.

서울 내 최대 업무지구인 강남과의 접근성을 갖춘 신흥업무지구도 주목 받고 있다. 서울숲 인근 성수동 일대와 문정지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신흥업무지구의 개발로 실제로 공실률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부동산종합서비스업체 메이트플러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강남권 공실률은 2011년 12월 2.73%였던 공실률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해 마지막 조사시점인 올해 3월에는 9.80%의 공실률을 보였다.

반면 상암DMC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19.6%에서 13.3%로 줄었다.

때문에 향후 공급 예정이거나 공급중인 오피스도 관심이 높다. 마곡지구에서는 상반기 공급에 이어 17일 오피스갤러리를 오픈하는 '마곡나루역 프라이빗타워II'가 공급에 나서고 송파 문정지구에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H비즈니스파크'와 6블록 '문정동 현대지식산업센터'도 공급중이다.

구성헌 기자 carlove@

분당·판교 더블생활권 '힐스테이트 태전'

현대건설 전용 59~84㎡ 3146가구 공급
창조경제밸리 조성으로 실수요자 인기



경기도 광주에서 분당·판교생활권을 누리는 랜드마크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 중이다. 풍부한 교통호재로 성남 분당·판교 및 강남권 등의 지역으로 접근성이 우수한데다 정부의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에 따른 수혜도 기대할 수 있어 수요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경기 광주시 태전5,6지구에서 '힐스테이트 태전'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3층 4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146가구로 이뤄졌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59㎡ 1001가구 △64㎡ 208가구 △72㎡ 1260가구 △84㎡ 677가구 등 틈새평면을 포함해 전 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태전이 속해 있는 태전·고산지구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과 오포읍 고산리 일대 120여만㎡ 규모로 광주시 최초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민간택지지구다.

단지는 전세대 남측향(남동, 남서) 배치와 약 70% 가량이 4-Bay 판상형 설계(일부세대 제외)로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또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오픈형 주방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시켰으며 자녀방이나 주방 등의 공간을 가변형 벽체를 통해 학습공간·수납공간강화형 등(일부 해당평형 기준) 입주민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설계를 적용했다.

입주는 2017년 9~10월 예정이며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산 4-1번지에 마련돼 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KTX·신안산선 수혜 '시흥목감 신안인스빌'

전용 69·84㎡ 576가구…신흥주거지 부상
오늘 견본주택 오픈 23일부터 청약 시작



17일 신안이 경기도 시흥 목감지구B2블록에 공급하는 '시흥목감 신안인스빌'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시흥목감 신안인스빌'은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에 총 576가구 규모, 수요층이 두터운 전용면적 69·84㎡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시흥 목감지구는 174만700㎡ 규모로 조성되며 약 1만2000여 가구가 들어선다. 신흥주거지답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단지 남동쪽으로는 작은 하천이 흐르며 동쪽에는 대규모 근린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다. KTX 광명역세권 개발과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시흥목감 신안인스빌'은 공간 활용성을 높인 특화설계가 도입된다. 이 단지는 중소형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전 타입 모두 4Bay 확장형 설계를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전용면적 69㎡는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넓은 주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변형 알파룸이 설계되고 침실 벽을 가변형 벽체로 설계해 세대 구성원에 따라 침실 통합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전용면적 84㎡는 알파룸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자의 취향에 따라 알파룸과 주방공간 통합, 침실과 거실의 통합을 통해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17일 견본주택을 오픈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청약일정은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입주는 2017년 12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0-7에 위치한다.

구성헌 기자 carlove@

구글 "어닝서프라이즈" 루스 포랏 영입 통했다

2분기 순익 4.4조원 17%↑
투자 효율 높여 비용 억제
영업비 증가율 13%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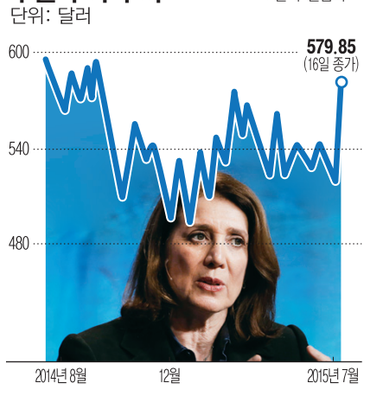
구글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다. 지난 3월 월가에서 영입한 루스 포랏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실리콘밸리 데뷔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글은 16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지난 2분기 순이익이 39억 달러(약 4조4800억원, 주당 6.51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억 달러(주당 4.96달러)에서 17% 늘었다고 발표했다. 특별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익은 6.99달러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6.73달러를 뛰어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은 177억27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파트너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제외한 매출은 143억5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3% 늘고, 시장 전망치인 143억 달러도 소폭 웃돌았다.

비용 증가세가 주춤해지면서 구글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 분기 영업비용 증가율은 13%로, 1분기의 21%에서 낮아졌다.

구글 주가 추이 (단위: 달러) ※출처: 블룸버그



구글의 실적 호조에는 포랏의 공이 컸다는 평가다. 회사는 지난 3월 모건스탠리에서 잔뼈가 굵은 루스 포랏을 CFO로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포랏은 5월 말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번이 구글로 이적한 후 첫 실적 발표다.

포랏은 구글의 투자 효율성을 높여 비용 증가 추세를 억제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자 기사에서 구글이 인력채용을 억제하고 덩치가 커져가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그 중심에는 포랏이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포랏 CFO는 비용과 수익, 회계시스템을 검토하는 내부 감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사실 이런 경영구조 효율화 노력은 포랏의 전임자인 파트리크 피셰트 때부터 시작됐다. 구글의 지난 1분기 신규 인력 채용은 1819명으로, 지난 2013년 4분기 이후 가장 적었다. 지난해 구글은 분기당 평균 2435명을 충원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실적 부진과 미지근한 주가 추이 속에서 성과가 낮은 사업분야 채용은 억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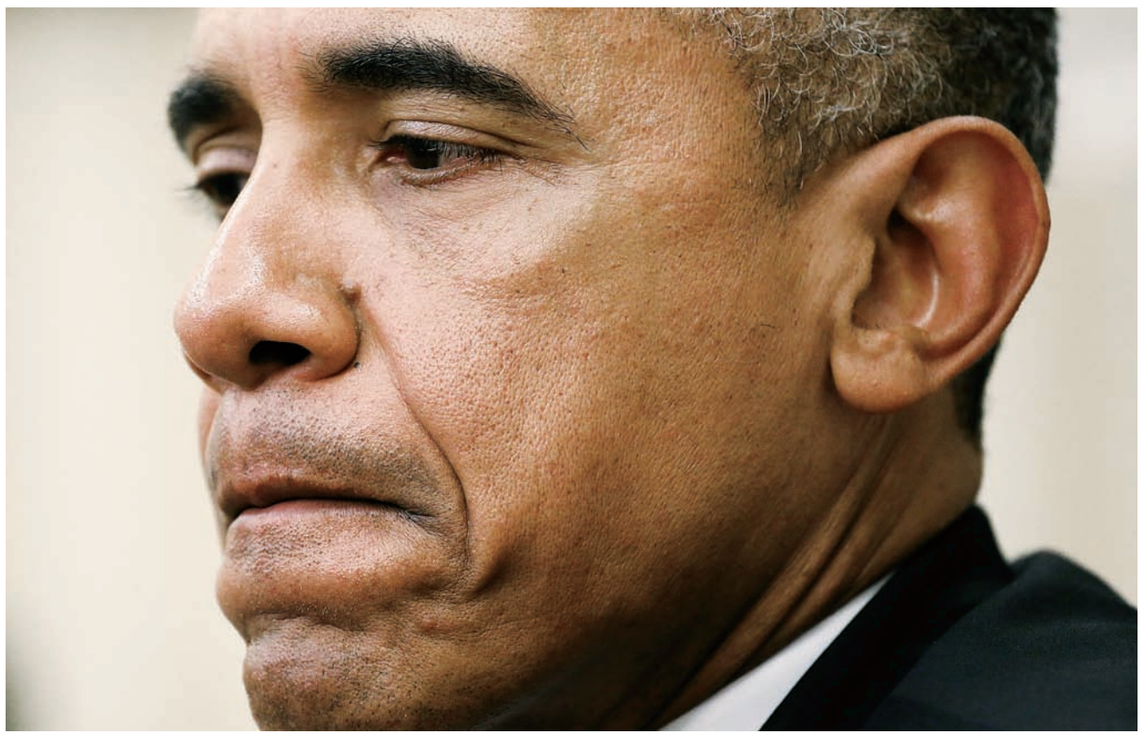
포랏 CFO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배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비용 절제'를 강조하면서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통제 가능하도록 비용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구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난 분기 자본지출 속도가 둔화한 것에 대해 포랏은 "구글은 지금 그동안의 투자를 소화하는 시기"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포랏은 모건스탠리 CFO로 있을 당시,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 빈사상태에 빠졌던 은행을 살아나게 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이전과 같은 방만한 투자는 없을 것이라는 포랏의 답변에 투자자들도 환호했다. 구글의 주가는 이날 3.5% 급등한 579.85달러로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12% 폭등했다.

한편 포랏은 2분기 구글의 성장을 이끈 세 가지 축으로 모바일과 유튜브, 프로그래머틱 광고(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광고기법)를 꼽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또 묻지마 총격사건… 침통한 오바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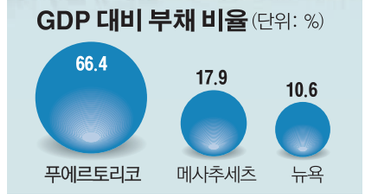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집무실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경 미국 테네시 주 채터누가의 해군 모집 사무소와 해군 예비역 센터 등 2개 군 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역 미 해병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쿠웨이트 태생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도 사망했다. 이번 총격사건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법 개혁을 강조하고자 테네시 주에서 가까운 남부 오클라호마 주를 방문 중인 가운데 발생했다. 채터누가/AFP연합뉴스

'미국판 그리스' 푸에르토리코…美는 나몰라라

내달 1일 만기 채권 9400만 달러 채무 불이행 가능성
美정부 지원에 소극적… S&P 신용등급 'CC'로 강등



GDP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

푸에르토리코 공공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이 만기인 9400만 달러(약 1078억원)의 채무를 이행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에르토리코는 현재 72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안고 있어 부채상환유예(모라토리엄)에 내몰린 상황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6일 푸에르토리코의 부채 상환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푸에르토리코의 신용등급을 'CCC-'에서 'CC'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S&P의 브랜던 브라운 애널리스트는 성명을 통해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푸에르토리코 정부개발은행(GDB)의 디폴트가 확실(virtual certainty)하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푸에르토리코는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로 회생 기회를 얻게 된 그리스보다 더 위험한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푸에르토리코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배경에는 스스로 파산을 밝힌 푸에르토리코 주지사의 안이한 태도와 이를 나몰라라 하는 미국 주정부 사이의 불협화음 때문이다.

최근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푸에르토리코 주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푸에르토리코는 72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선언해 충격을 안겨줬다. 그러나 미국 의회 쪽에선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 미국 상원재정위원회의 호세 나달 파워 의원은 "GDB가 재정위원회에 자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정당성, 요구의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은 16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푸에르토리코 정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푸에르토리코 사태는) 미 의회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며, 연준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 첫 고비 넘겼다

유로그룹, 단기자금지원 결정
ECB, 긴급유동성 한도 증액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 협상을 향한 첫 고비를 넘겼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은 16일(현지시간)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스 의회가 3차 구제금융의 조건인 경제개혁안 입법을 예정대로 가결한 것이다.

유로그룹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일부 국가가 그리스 지원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입법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한 지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로그룹은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자금으로 70억 유로(약 8조7600억원)의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방안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리스는 당장 이달 20일 유럽중앙은행(ECB)에 35억 유로(약 4조3700억원)를 갚아야 한다.

같은 날 ECB도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증액하겠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은행에 대한 ELA 한도를 앞으로 일주일간 9억 유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심의 촛점은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의 구제금융 방안으로 채무탕감(헤어컷)과 만기연장 등의 채무경감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에 쏠리고 있다.

여기에 그리스 내분을 봉합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속한 급진좌파연합(SYRIZA)은 긴축정책을 집행하게 되면서 여당 내 갈등이 심해졌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美 올 금리인상 확실… 글로벌 머니 "달러로"

유로·달러 환율 7주 만에 최저

미국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자 전세계의 투기 자금이 달러에 몰리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서 연내 금리 인상방침을 재차 확인시켰다. 연내 어느 시점에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방침도 강조했다. 이는 전날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로써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중국증시의 불안정을 이유로 미국이 금리인상을 미룰 것이라던 관측은 완전히 후퇴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강세를 부채질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유로·달러 환율은 장중 1.0856달러로 지난 5월 27일 이후 7주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달러·엔 환율은 124엔으로 2주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캐나다 달러와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등 자원부국의 통화 가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몰리며 상품시장도 맥을 못추고 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값은 이날 온스당 1143.90달러로 전일 대비 0.3% 하락하며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신흥국 불씨 꺼진 車업계… 믿을 건 미국뿐?

상반기 中 판매 증가율 1.4%
브라질서도 판매 21% 급감
美는 10년 만에 최대치 기록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신흥국 특수가 실종됐다. 이에 주요 업체들은 꾸준히 수요가 이어지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상반기(1~6월) 주요국의 신차 판매 대수 실적을 종합한 결과 중국과 남미 러시아 등 신흥국의 부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1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은 상반기 자동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185만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성장률인 6.9%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 달 기준으로 6월까지 3개월 연속 판매가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 한 자릿수 성장에서 하반기 두 자릿수로 성장세가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다시 주저앉은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중국증시 급락에 신차 매입 감소 움직임이 확산됐다.

상반기 주요국 신차 판매 현황

국가	판매대수	증감률
미국	852만대	4%
일본	267만대	-11%
중국	1185만대	1%
유럽	692만대	8%
브라질	131만대	-21%

출처: 니혼게이자이

브라질은 상반기 판매가 131만대로 21% 급감했다. 브라질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지자 정부가 지난 2012~2014년 경기 부양 차원에서 자동차 구입 세율을 낮추면서 올해 신차 수요가 사라진 영향이다.

선진국 시장도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은 상반기 판매 대수가 267만대로 11% 감소했다.

그나마 자동차업계에 위안이 되는 것이 미국 시장이다. 미국은 상반기 판매대수가 전년 대비 4% 늘어난 852만대로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대형차나 고급차의 인기가 높아 자동차업계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매우 좋은 시장이다. 리서치업체 켈리블루북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 달 신차 평균 판매가는 3만3340달러(약 3826만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1달러 올랐으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제너럴모터스(GM)와 도요타 등 주요 자동차업체가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GM은 앞으로 3년간 미국 생산시설 확대에 54억 달러를 투입한다. 도요타는 멕시코에 공장을 신설해 공급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시장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미국인의 약 90%는 대출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애플보다 잘나가는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 '대박'
5년간 주가 574% 폭등

미국의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가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넷플릭스의 주가 상승률은 시가총액 세계 1위 업체인 애플을 뛰어넘었다고 16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넷플릭스의 주가는 574% 폭등했다. 같은 기간 애플의 주가 상승률은 넷플릭스의 절반 수준인 245%에 불과했다. 나스닥지수는 이보다 더 낮은 134%에 그쳤다.

넷플릭스는 2007년부터 온라인 DVD 대여 서비스를 도입했다. 단순 DVD 대여업에서 OTT 서비스 사업자로 변신한 넷플릭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 모델을 도입했다. 시장에서는 DVD 대여 사업이 쇠퇴하는 가운데 새로 등장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나 이는 기우였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의외의 성공을 거두며 넷플릭스의 질주가 시작됐다.

15일 넷플릭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체 사용자가 6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현재 넷플릭스의 사용자는 6560만명. 이 중 해외 사용자는 2330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237만명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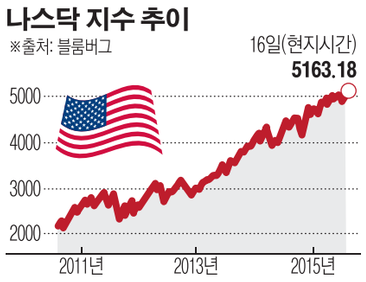
넷플릭스 주가 추이

※출처: 블룸버그



나스닥 지수 추이

※출처: 블룸버그



OTT(Over The Top)

OTT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말한다. OTT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Top'은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셋톱박스가 있고 없음을 떠나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한다.

2분기 회사의 순이익은 2630만 달러(약 302억원), 주당 6센트였다. 이는 1년 전인 7100만 달러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의 매출은 16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시장은 강한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 덕분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15일에 이어 16일에도 전날보다 18.02% 폭등한 115.8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날 나스닥지수는 1.26% 오른 5163.18에 거래를 마쳤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치맥의 즐거움이여, 슬픔이여!

한여름 저녁, 치맥(치킨과 맥주)과 음악·연극공연을 즐기는 '2015 대구 핫 페스티벌'이 17~26일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 중 치맥페스티벌 개최기간은 22~26일이다.

치맥페스티벌에서는 치맥 닭싸움 대회, 치킨 신메뉴·수제맥주 경연대회 등이 벌어진다.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아아, 이름도 좋네. 가보고 싶어!),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특화거리는 연계해 축제를 한다. 주최측은 작년에 벌써 이 축제를 중국에 수출했다. 저장(浙江)성 닝바오(寧波)에서 열린 치맥 페스티벌은 '별그대'가 키운 한류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치맥은 튀김닭이 1970년대에 등장한 생맥주의 안주로 각광 받으면서 한국의 젊은 음주문화로 정착됐다. 특히 2002 한일 월드컵 때 붉은 유니폼을 입고 맥줏집에서 환호하던 응원단이 치맥 확산의 선구자들이다.

그때 어느 날인가(연장에서 이긴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인 듯) 승리의 기쁨과 치맥으로 불콰해진 남자가 길거리에서 만난 우리 작은아들과 친구들(중학생이었다)에게 "야 이놈들아, 맥주 한잔 해!" 하면서 돈을 주었다. 미성년자라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하자 "그러면 담배 사 피워!" 그러면서 돈을 주었다고 한다. 지금이라면 "치맥 한잔 해!" 이랬을 것이다.

치맥은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다. 소규모 맥주 체인점에선 '감맥'(감자튀김+맥주)을, 피자업계에선 '피맥'(피자+맥주)을 띄우기 위해 애를 쓰는데, 아무리 해도 치맥만 못해 보인다. 치킨산업이 잘돼서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이 뜨는 건지, 그 반대인 건지는 잘 모르겠다. 좌우간 시대의 요구(!)와 젊은이들의 감성에 힘입어 치맥이 잘 팔리는 세상이다.

치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별 말이 다 생겼다. '치느님(치킨+하느님)', '닭을 죽인 자는 미워하되 튀긴 자는 미워하지 말라',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것. 그리고 취중진담이 아니라 치킨을 먹으며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치중진담'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 말을 하다 보면 영화 '왕과 나'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기타 등등, 기타 등등(etc, etc)"이 생각난다.

'치킨'은 요즘 세상을 푸는 키워드가 돼 버렸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내신 1·2·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5·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8·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그러니 느긋하게 치킨을 먹으려면 죽어라 공부를 열심히 하라.

더 나아가 치킨을 소재로, 치킨을 통하여 '한국 학생들의 진로'를 설명하는 글도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진로는 중학교까지 같다. 문과와 이과로 갈리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운명이 달라진다. 먼저 문과의 경상계열 대학 졸업자. 그의 삶은 CEO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치킨집을 차리는 걸로 이어진다. 남이 CEO일 때 백수였던 사람은? 아사. 굶어죽는다. 문과의 인문계열은 백수인 경우 치킨집으로 직행. 작가라면 치킨집 아니면 아사.

그러면 이과 대학 졸업자는? 자연계열이면 바로 아사, 공학계열이면 회사 다닐 때 죽도록 일하다 과로사하거나 치킨집. 여기서 말하는 치킨집이란 치킨집에 가서 치맥을 즐기는 게 아니라 문과든 이과든, 그리고 무슨 계열이든, 잘났든 못났든 나중엔 치킨집을 차린다는 뜻이다.

아아, 치맥의 즐거움이여, 그리고 치맥의 아픔이여, 슬픔이여!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필상 칼럼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추경으로 경제 살아날까

정부가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을 내놓았다. 11조8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6조2000억원은 메르스와 가뭄을 극복하는 데 투입하고 5조6000억원은 세입결손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금 3조1000억원, 민자 2조3000억원, 금융지원 4조5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해 민생회복과 경기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쓸 예정이다. 정부가 이와 같은 재정보강 방안을 내놓은 이유는 메르스와 가뭄의 고통을 해소하고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위기다. 수출이 올 들어 6개월째 감소다. 중국경제 침체와 엔화 및 유로화의 약세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내수도 가계부채와 고용불안으로 실종 상태나 다름 없다. 투자와 소비 증가가 멈춰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고 가뭄이 심해지자 경제가 숨이 막히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중국의 증시불안으로 인해 금융시장도 방향을 잃고 있다.

이번 재정보강은 공공병원 건립, 수리시설 확충, 사회간접자본 건설, 취약 근로자 취업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놓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기반이 함께 위축돼 돈을 풀면 투자나 소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부동자금이 쌓이고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구조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 정부는 46조원의 재정자금을 풀고 기준금리를 4차례나 인하하는 등 과감한 팽창정책을 폈다. 그러나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들뜨게 했을 뿐 실물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동자금과 가계부채가 각각 800조원과 11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마찬가지로 이번 정책도 반짝 효과로 끝나고 부동자금과 가계부채 문제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재정보강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췄다.

실로 큰 문제는 경기부양을 위해 팽창정책을 계속 펼 경우 정부가 부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일반부채는 569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5.7% 수준이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금을 합하면 200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의 125%에 이른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인해 4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부채를 갚기는커녕 세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계속 편성하면 정부 재정은 급속도로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추경에서도 정부는 9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같은 일을 반복할 경우 정부는 부도위기에 처하고 정책수행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이미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2000조원에 이르는 기업부채로 인해 부도위험이 높다. 여기에 정부가 정책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면 경제는 붕괴의 위기에 빠진다.

기업의 투자심리와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실종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가 심화해 정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꼬리를 물고 증가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 악순환에 제동을 건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보강 정책은 불가피하다. 국회는 이른 시일 내에 추경에 대한 심의를 끝내 정부가 정책집행을 서두르게 해야 한다. 이번 재정보강은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나타난 경기위축과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 경제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재정위험 증가의 대가가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추경은 최소한의 규모에 그쳐야 한다.

우리 경제에 절실한 것은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이다. 정부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기업부문에서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창업과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계부채도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 다음 필요에 따라 기준금리를 내리고 재정자금을 푸는 것이 수순이다.

하루 한생각 7월 17일

以管窺天(이관규천)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니 뭘 알겠나

여름벌레가 얼음에 대해 왈가왈부하면 얼마나 우스울까? 이걸 하충어빙(夏蟲語氷)이라고 하지만, 견문이 좁은 것을 이르는 말은 수없이 많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우물 안 개구리'인데, 개구리와 하늘을 결합한 단어로는 정저와(井底蛙) 정중지와(井中之蛙) 정중관천(井中觀天) 정중시성(井中視星) 좌정관천(坐井觀天) 등을 꼽을 수 있다.

오늘은 대롱, 즉 관(管)을 이용해 만든 말을 살펴본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춘추시대 말기, 나중에 의성(醫聖)으로 불린 편작(扁鵲)이 괵(虢)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다. 태자가 병으로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편작은 시의를 찾아가 무슨 병인지, 지금 어떤지 물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그는 "내가 살려 보겠다"고 했다. 시의는 "어린애도 그런 말은 곧이듣지 않을 것"이라고 무시했다.

편작은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의술은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고[以管窺天] 좁은 틈새로 무늬를 보는 것[狹隔目紋]과 같소." 편작은 이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다시 한번 태자를 살펴보시오. 그의 귀가 울고 코가 벌름거리는 소리가 들릴 거요. 양쪽 사타구니를 쓰다듬다가 음부에 손이 닿으면 그곳은 아직 따뜻할 것이오."

편작이 침을 놓자 태자는 소생했고, 치료를 더 하자 20일 후에는 일어났다. 사람들이 "편작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죽은 사람을 소생시킨 게 아니라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고친 것뿐이오."

대롱을 통해 하늘을 엿본다는 이관규천과 비슷한 말도 많다. 관규정격(管窺莛擊)은 한(漢) 동방삭(東方朔)의 "대롱 구멍으로 하늘을 엿보고, 고둥 껍데기로 바닷물을 재며, 풀줄기로 종을 치는 격[以管窺天 以蠡測海 以莛撞鍾]"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국량과 견식이 협소하고 천박하다는 뜻이다. 출전은 한서(漢書) 동방삭전.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오늘의 BAE 배국남 .com
www.baekn.com

'핑크 메모리'로 돌아온 에이핑크



에이핑크가 정규 2집 앨범 '핑크 메모리(PINK MEMORY)'로 컴백했다. 에이핑크는 16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정규 2집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에이핑크의 타이틀곡 '리멤버(Remember)'는 주요 음원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를 휩쓸었다. 손나은은 "데뷔 후 음원차트를 처음으로 휩쓸었다"며 "1위가 되자마자 멤버들과 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초롱은 "1위도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롱런하는 음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타이틀곡 '리멤버'는 경쾌한 리듬과 빈티지한 사운드가 조화를 이룬 신나는 느낌의 댄스곡이다. 윤보미는 "에이핑크가 가진 깨끗한 이미지에 성숙함이 더해졌다"며 "더운 여름 시원한 사이다 같은 곡"이라고 소개했다. 오하영은 "1위를 한다면 여름이니 수경을 쓰고 무대에 오르겠다"며 1위 공약을 밝혔다.

에이핑크는 17일 KBS 2TV 음악프로그램 '뮤직뱅크'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인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온라인 와글와글

창덕궁 낙선재 '宮스테이' 하루 300만원…이것도 창조경제?



○…창덕궁 낙선재를 VVIP급 객실로 꾸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의 하루 숙박료가 300만원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가 숙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일부 전문가들과 네티즌의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혹여나 서민이 숙박할까 걱정하는 건가", "모두가 지키고 느껴야 할 문화재인데, 외국인은 왕 체험 내국인은 평민 체험", "나라에 돈이 없나 보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스프링클러 등 숙박시설에 맞게 개조하려면 거의 다 뜯어고쳐야 할 텐데", "숭례문 불탄 지 얼마나 됐다고", "문화재 훼손에 앞장서는군요", "관광공사도 아닌 문화재청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조선의 궁을 전주 한옥마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창덕궁을 동물원으로 쓴 사람들이나 궁을 호텔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나", "이것도 창조경제야?" 등 보존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화재청의 이번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주문생산 전문업체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광고에 게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1000원으로 소비자에 즐거움을…자긍심이 출발점

릴레이 기고

나는 왜 기업을 하는가 ⑪



박 정 부

다이소아성산업 회장

박정부 회장은

- 1973년 2월 한양대학교 공업경영학 학사
- 1988년 한일맨파워 회장
- 1992년 다이소아성산업 회장
- 1993년 11월 '제30회 수출의 날' 상공자원부 장관상
- 1997년 11월 '제43회 수출의 날' 석탑산업훈장, 천만불 수출의 탑
- 1999년 8월 '이달의 무역인상' 수상
- 2002년 11월 '제39회 무역의 날' 철탑산업훈장, 1억불 수출의 탑
- 2003년 6월 생산성 경영자 대상
- 2008년 12월 '제45회 무역의 날' 동탑산업훈장
- 2009년 12월 지경부/대한상의 주최 '대한민국 유통대상(국무총리상)'
- 2014년 10월 '제19회 한국유통대상 대통령상' 수상

주요 사회활동

- 2006년~한국무역협회 전략운영위원장
- 2006년~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 위원장
- 2012년~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 2013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세제금융위원장



지금 다이소는 대한민국 균일가숍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매장이 운영 중이고, 한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이소에 대해 알고 있다. '아스코이븐프라자'라는 이름으로 균일가숍 1호점을 오픈했던 18년 전이 엊그제 같은데, 주마등처럼 지나온 세월이 스쳐간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일하는 것을 꿈꾼다. 일을 즐기면서 하려면 먼저 자신이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1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겪어온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긍심이 있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과정을 즐겁게 견뎌왔다고 말할 수 있다.

처음 한국에 균일가숍을 론칭했을 때 가게 문 앞에서 1000원짜리 제품을 쓸 수나 있겠느냐고 비웃으며 발을 돌려 나간 손님도 있었다. 또 여러 분야의 회장님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1000원짜리 제품을 판매한다고 소개했다가 비웃음을 당한 적도 있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이 사업에 자긍심을 갖고 있다. 마진만 생각해서는 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지금은 매장에서 5000원짜리 '고가 제품'도 판매하고 있지만, 여전히 1000원, 2000원 상품이 다이소 제품의 약 80%를 차지한다.

적은 돈으로 사람들이 필요를 충족하고 즐거움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얻는 가장 큰 보람이다. 나는 균일가를 지켜가는 이 일에 스스로 일종의 나눔을 실천한다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발굴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온 열정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중국, 동남아, 유럽, 러시아 등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백명의 제조업자를 만나고 또 이들과 '10원', 심지어 '1원' 깎기 싸움을 벌인다.

15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기업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선택했던 1988년, 당시 내 나이는 불혹을 넘긴 45세였다. 나만의 사업을 꾸려가고 싶었지만, 처음부터 균일가숍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의 첫 사업은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 임직원의 일본 연수와 세미나를 지원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본업보다 일본을 오가면서 우연히 접하게 된 무역 업무가 더 마음에 들었다. 사실 난 어린 시절에 무역상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 오랜 시간 회사원으로 지내면서 잊고 살았는데, 이 기회에 제대로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기업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쉽게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고자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로켓이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대기권을 벗어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먼저 필요하듯, 새로움을 뚫고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이만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사업 초반 미숙함 때문에 겪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사업을 끌어갈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가 다가왔을 때 성공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법이다.

'한일맨파워'로 무역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일본 업체를 닥치는 대로 찾아 다니며 납품을 의뢰했다. 하지만 꼼꼼하고 기준이 높은 일본 기업들에게 아마추어인 우리의 제안이 쉽게 받아들여질 리 만무했다. 퇴짜맞고 거절당하는 것을 일상으로 여기던 중, 우여곡절 끝에 일본 주류 도매업체와 첫 주문을 성사시켰다. 고객 사은품용 유리 재떨이 5000개였는데, 그때 느꼈던 짜릿한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번 거래는 당연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고, 이를 발판 삼아 우리 앞에는 성장할 일만 남았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담뱃재의 열로 재떨이가 깨지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주문 전량이 반품되었다. 가격경쟁력을 중시하다 품질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것이 실수였다.

> 무역업 시작하고 日서 첫 주문
> 품질 제대로 체크 못해 전량 반품
> 혹시 쉽게 가려는 마음 있었나
>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
> 균일가숍 전국에 1000여개
> 값 싸고 품질 좋은 상품 발굴
> 전세계 누비며 '1원 깎기' 싸움
> 일종의 나눔 실천하는 가치도

실수를 되짚어보며 나에게 쉽게 가려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았다. 15년간 생산관리직에서 일해왔기에 품질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실수를 불러왔구나 싶었다. 이후 나는 내 나름의 기준을 버리고 납품업체의 품질을 확인하는 데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가격과 품질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을 찾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며 노력했다.

1989년은 인생 최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100엔숍 업체인 다이소 그룹을 소개받아 제품을 납품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당시 다이소 그룹 회장이었던 야노 회장은 꼼꼼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그리고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눈앞에서 가차없이 제품을 집어 던지는, 강한 캐릭터의 소유자였다. 나는 다이소산업과의 계약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 거래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하루 종일 신칸센을 타고 일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일본 시장을 파악했다. 잠은 일본 전역의 사우나에서 해결했다. 남들이 중국에서만 싼 제품을 찾을 때, 나는 조금 더 수고한다는 생각으로 동남아, 유럽, 러시아 등 세계 각지로 다니며 각 나라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찾았다. 처음 수십개의 상품을 들고 야노 회장 앞에 섰을 때는 긴장감으로 다리가 후들거렸다. 야노 회장의 입에서 'OK'라는 말이 나왔고, 한일맨파워는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기업에 생활용품을 독점 공급하게 되었다. 일본 다이소산업과의 계약을 계기로 나는 일본의 100엔숍(우리나라의 1000원숍) 시장을 눈 여겨보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 1000원숍 오픈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일본의 100엔숍 시장은 내게 참 신기한 시장이었다. 일본 100엔숍은 7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도 높고 꼼꼼한 국민성을 가진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았다. 일본 100엔숍 시장을 분석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100엔숍인 다이소산업에 제품을 납품하며 그들의 경쟁력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체계적인 1000원숍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금씩 1000원숍 오픈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매번 깐깐한 일본 다이소의 기준에 맞는 제품을 찾아다니다 보니 상품개발 능력과 품질관리 능력도 갖출 수 있었다.

일본 구매 고객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일본 상품기획자를 다수 고용해 일본 문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문구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는 한국의 대표 균일가숍 다이소를 운영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나는 1992년 한국에 다이소아성산업을 설립했지만 5년간 철저하게 한국 시장조사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고, 1997년 '아스코이븐프라자'라는 이름으로 1000원숍을 오픈했다. 그리고 다이소는 3년 만에 매장 수 100개를 돌파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균일가숍으로 자리잡았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갖고 있느냐는 점이다. 이 자긍심이 힘든 일을 즐겁게 해 주고, 기업가가 초심을 변질시키지 않고 노력과 의지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1000원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균일가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다이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가격 이상의 가치를 얻어가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자긍심이 70세를 넘은 지금도 1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며 발품을 팔게 하는 힘이다.

김경아의 소곤소곤 자본시장부 펀드팀장

'우등생' 자투리펀드의 눈물



세상의 모든 부모 입장에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오히려 멀쩡하고 잘 나가는 자식보다 늘 열심히 하지만 한 켠에서 소외된 자식일수록 더 마음이 가는 법이다.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운용사 입장에선 내놓는 펀드 하나하나마다 늘 귀한 자식에 비유된다.

펀드 첫 론칭 시 초기 성과가 부진해도 당시 시장 상황에 어울리는 조건에 딱 맞아떨어져 예상 밖으로 히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펀드 명부터 상품 출시 타이밍,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역작으로 내놓았는데 정작 투자자와 판매사한테 외면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모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 생각하면, 성과가 우수한데 판매사나 투자자한테 외면 받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쪼그라든 '자투리 펀드'는 애물단지보다는 늘 애틋한 자식이다.

실제 몇 년간 성과 면에서 우등생이었지만 한동안 자투리 신세였다가 입소문이 나 수탁액이 수천억원을 오가는 대박펀드로 금의환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올 들어 대표 히트 펀드로 꼽히는 현대인베스트먼트운용의 로우프라이스 펀드도 수년 전 설정 당시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운용사들은 성과가 우수한 자투리 펀드들이 대박펀드로 환골탈태하는 주인공으로 거듭나 그동안 믿고 기다려준 투자자들에게 '결초보은'하는 날을 기다린다. 올 들어 연초 이후 성과가 무려 40%를 웃도는 한화히든챔피언펀드, 미래에셋녹생성장펀드도 현재 자투리 펀드 신세다.

그런데 최근 금융당국이 자투리 펀드 정리에 칼을 빼고 나섰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새로 내놓은 카드는 임의 해지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아예 펀드 약관에 운용자금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투자자 동의없이 임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애초부터 자투리 펀드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 골자다. 약관에 반영만 하면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펀드를 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자투리 펀드에 적극적인 운용사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당근도 내놓겠다고 독려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저조한 성과로 속을 끓였던 일부 자투리 펀드들의 청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과가 우수하지만 관리상 어려움이나 금융당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수년간 '거위의 꿈'을 기다린 우등생 자투리 펀드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도 앞선다.

현재 우등생 자투리 펀드를 운용 중인 한 펀드매니저는 "설정액 규모가 큰 인기 펀드들 대부분은 판매사의 전략적 상품이나 계열운용사 상품을 미는 경우로 베스트펀드에 오른 사례가 많다"며 "투자자를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오히려 자투리 펀드 정리에 앞서 우등생 자투리 펀드는 육성하는 판매 관행 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소규모 펀드가 대형 펀드 대비 정상적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번 정리안을 내놓은 금융당국의 입장엔 동감한다.

여기에 우등생 자투리 펀드가 피해를 보지 않는 현명한 대응 방안도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kakim@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정치경제부 (02)799-2650 산업부 (02)799-2664 문화부 (02)799-2669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자본시장부 (02)799-2658 미래산업부 (02)799-2663 사회팀 (02)799-2656
사진팀 (02)799-2634 금융시장부 (02)799-2665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국제팀 (02)799-2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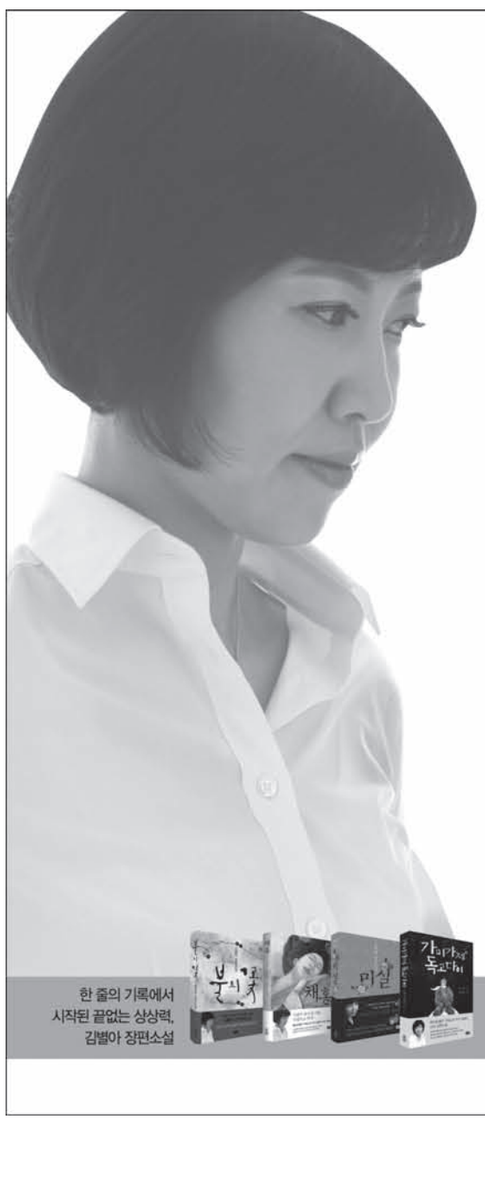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www.hainaim.com 전화 02-326-1600 팩스 02-326-1624 해냄



"이 은밀하고 간절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주실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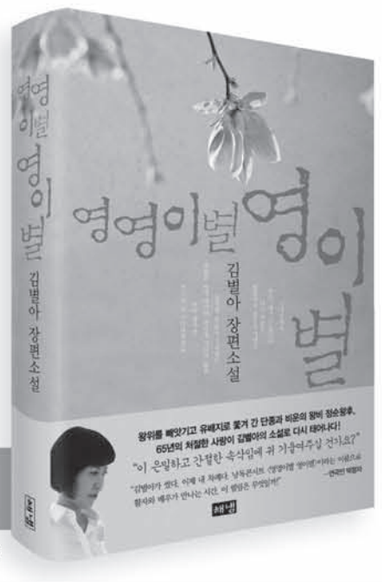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 간 단종과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 65년의 처절한 사랑이 김별아의 소설로 다시 태어나다!

칼끝을 걷듯 살아온 인생, 끝내 살아내리라!

왕비에서 평민으로, 날품팔이꾼, 걸인, 비구니까지
피와 탐욕으로 점철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켜낸 은애(恩愛)의 기억
단종 비 정순왕후가 고백하는 두 해 남짓의 사랑, 예순다섯 해 그리움

"김별아가 썼다. 이제 내 차례다. 낭독콘서트 〈영영이별 영이별〉이라는 이름으로 활자와 배우가 만나는 시간. 이 떨림은 무엇일까!" —연극인 박정자

그녀의 존재를 말하면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한다. 세상이 외면했던 65년의 고독을 말하면, 경악한다. 그녀가 움켜잡았던 온기, 이름 모를 여인들의 거친 손을 말하면 눈물짓는다. 삶은 수다한 이유와 목적을 떠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유이자 목적임을, 나 또한 그녀를 쓰고 나서야 알았다. 알아가고 있다. —「작가의 말」 중에서



한 줄의 기록에서 시작된 끝없는 상상력, 김별아 장편소설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사랑, 김별아 에세이

사륙판 | 양장본 | 272쪽 | 13,800원

김별아 장편소설 영영이별 영이별

최경환 부총리 취임 1주년 맞아 직원들에게 이메일

"집 팔리기 시작… 가장 반갑고 고마운 말"

"英·日 '뜀박질 개혁' 참 부럽다
일자리 만들어 달라는 대학생
부모 입장서 생각… 마음 아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 정치권은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안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는 생각에 속이 상할 때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다른 나라는 정부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2인 3각 경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과 영국의 '뜀박질 개혁'이 참 부럽다"며 일본과 영국을 개혁의 모범 사례로 들었다.

최 부총리는 "여기에 더해 (우리) 노동계는 총파업을 무기로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현실"이라면서 "지금은 '한국처럼 되기(Koreanization)'가 많은 개도국의 목표지만 나중에 '거북이가 잠자는 정도의 느린 개혁'으로 의미가 바뀔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 대책, 경제활력 대책,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은 '시간 싸움'"이라면서 "물이 없어 성장이 멈춘 나락에 뒤늦게 물을 줘봤자 쭉정이가 알곡이 될 리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다"라며 "괜찮은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대자보를 쓰는 대학생의 절박함이나 이들이 '졸업=백수'가 되는 것을 보며 복장이 터질 부모들을 생각해 보라"고 언급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구조개혁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린 점과 시장이 정부 정책에 반응하기 시작한 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비록 이해 갈등이 커서 정부의 시간표대로 척척 결과가 나오기 어렵겠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보듯 착실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부동산은 가계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드디어 집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가장 고맙고 반갑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메르스 사태로 인해 한국경제가 충격을 받는 등 악재로 그간의 성과가 묻힌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세상사라는 게 참 마음 같지가 않다. 경제가 회복되는 와중에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출이 부진해졌고, 메르스 사태까지 터지며 우리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리스 사태와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도 걱정"이라며 "이렇게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다 보니, 지난 1년간 여러분이 벌인 분투가 좀 묻히는 느낌이 없지 않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명동 찾은 유커 방한단… "메르스 종식 확인"

아시아나항공, 한·중 관광업계 관계자 '명동 걷기' 행사
박원순 시장 마이크 잡고 관광명소 '일일 가이드' 나서



16일 서울 명동 일대에서 열린 중국 관광업계 사장단 명동 걷기 행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조규영 여객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네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른쪽 다섯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국회의원(서울 중구, 오른쪽 세번째)과 함께 중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일일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메르스로 침체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 한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명동 걷기 행사를 했다.

아시아나항공과 한국 관광업계 관계자 100명은 16일 중국 전 지역 대표 여행사 사장단 150명과 언론인 40명, 파워블로거 10명 등 총 200명의 방한단과 명동 걷기 행사를 시행했다.

아시아나항공 조규영 여객본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국회의원(서울 중구), 하나투어 권희석 부회장, 서울관광마케팅 김병태 사장 등 다양한 인사가 참석했다.

300명의 참석인원은 함께 '아름다운 한국, 매력적인 서울' 구호를 외치면서 명동 예술극장에서 출발해 30분간 명동 일대를 돌아본 후, 명동역에서 '아시아나, 서울 사랑해요' 함성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아시아나항공 조규영 여객본부장은 "메르스 종식을 널리 알리고자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며 "서울을 찾는 중국인의 73%가 방문할 만큼 대표적인 '유커(遊客)' 인기 관광지인 명동에 예전처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조규영 여객본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명동 일대를 걸으며 중국 여행사 사장들에게 상점들과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일일 가이드 역할을 하며 눈길을 끌었다.

방한단은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 서울에 머무르며 아시아나항공과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공사, 롯데면세점, 롯데호텔, 롯데월드어드벤처, 하나투어와 공동으로 마련한 청와대 방문, 한강유람선 관광, 제2롯데월드 방문 등 이벤트에 참석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취항 중인 일본 14개 도시 여행사 관계자 200명과 지방자치단체 100명, 언론인 50명, 한일 친선협회 회원 40명 등 총 390명의 방한단을 2박3일간 초청해 중국에 이어 일본에도 메르스 종식을 알릴 방침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인사

◆한국은행 ◇국실부장 △지역협력실장 장한철(1급) △정책연구부장 서정의 △운용지원부장 양석준 △감사실장 오인석 △전북본부장 강성대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부장 이정 〈승진〉 ◇1급 △정책보좌관 박종석 △법규제도실장 정길영 △준법관리인 김상기 〈전보〉 △인사경영국 신원섭 △인재개발원 김일환·이희원 〈승진〉 ◇2급 △조사국 안병권 △금융결제국 이상엽 △발권국 김동균 △국제국 최철호 △외자운용원 김영민·박광석 △경제연구원 박세령 △포항본부 유현상 〈전보〉 △기획협력국 노영래 △경제교육실 최동현 △전산정보국 김영일 △인사경영국 강주환 △인재개발원 조군현 △경제통계국 황상필 △외자운용원 백승호 △제주본부 이상윤 △인사경영국소속 노충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나승식 ◇과장 △에너지신산업정책 김상모 △에너지신산업진흥 이귀현 △에너지수요관리 양원창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조정과장 이재만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장 최승만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장 임헌진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장 장혁조 ◇소장 △동부광산보안사무소 김성수

◆경찰청 〈총경급〉 △기획조정관실(국유재산관리TF팀장) 이연태 △과학수사센터장 송호림 △교통기획과장 윤승영 ◇과장 △본청 교통안전 김종보 △본청 교통운영 김병우 △본청 경비 김준철 △본청 항공 한원호 △본청 외사기획 윤외출 △경찰대 운영지원 양영우 △경찰대 교무 박기태 △경찰대 학생 강대일 △치안정책연구소 기획운영 곽순기 △교육원 교무과장 이상현 △중앙 운영지원 홍명곤 △중앙 교무 유제열 ◇수사원 △운영지원과장 전재희 △서울 경무과(지방자치발전추진단) 김광식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이성호 ◇과장 △서울 교통관리 이명훈 △서울 외사 김성완 ◇서장 △서울 성북 이인상 △서울 동작 이익훈 △서울 강북 박종천 △서울 금천 정병권 △서울 중랑 임병호 △서울 노원 하원호 ◇과장 △부산 정보화장비 이순용 △부산 경비 김성훈 △부산 수사1 박재구 △부산 형사 안정용 ◇실장 △부산 112종합상황 김동현 ◇서장 △부산 동부 박경수 △부산 부산진 이흥우 △부산 해운대 변항종 △부산 북부 원창학 △부산 기장 정남권 △대구 홍보담당관 박효식 ◇과장 △대구 경무 윤종진 △대구 정보화장비 류상열 △대구 생활안전 김한탁 △대구 여성청소년 정식원 ◇서장 △대구 남부 서상훈 △대구 달성 이근영 △대구 강북 양원근 ◇과장 △인천 경무 윤성태 △인천 경비교통 이지춘 △인천 생활안전 이석 △인천 여성청소년 김철우 △인천 수사1 박주진 ◇대장 △인천 국제공항경찰 정성채 ◇서장 △인천 남동 김관 △인천 연수 조정필 △광주 홍보담당관 권영만 ◇과장 △광주 경무 김홍균 △광주 정보 김성열 △광주 보안 장영수 △광주 생활안전 김근 ◇서장 △광주 동부 김영근 △광주 서부 오윤수 △광주 남부 김재석 ◇담당관 △대전 홍보 정성일 △대전 청문감사 태경환 ◇과장 △대전 정보화장비 김경자 △대전 생활안전 송정애 △대전 여성청소년 최종혁 △대전 수사 이동주 △대전 형사 김재선 ◇실·대장 △대전 112종합상황실 이양호 △대전 청사경비대 김홍근 ◇서장 △대전 중부 최성환 △대전 서부 이동기 △대전 대덕 권수각 △대전 유성(준비요원) 박병규 △울산 청문감사담당관 서민 ◇과장 △울산 정보 오동근 △울산 생활안전 진상도 △울산 여성청소년 이희석 △울산 경비교통 김원범 ◇실장 △울산 112종합상황 박권욱 ◇서장 △울산 동부 박태길 ◇담당관 △경기 홍보 최정현 △경기 청문감사 김동락 ◇과장 △경기 정보화장비 신경문 △경기 수사 장우성 △경기 형사 고기철 △경기 보안 김춘섭 ◇실장 △경기 112종합상황 권기섭 △제2청 청문감사담당관 김원태 △제2청 112종합상황실장 정두성 △제2청 여성청소년과장 김종구 △제2청 형사과장 이원정 △제2청 경비교통과장 김충환 ◇서장 △수원중부 류영만 △성남중원 박성주 △용인서부 최병부 △광주 강도희 △김포 이봉행 △의왕 김항곤 △이천 김균 △여주 엄명용 △양평 전진선 △의정부 김성권 △남양주 박승환 △파주 조용성 △동두천 임정섭 △포천 전기완 △강원 청문감사담당관 윤원욱 ◇과장 △강원 경무 홍순광 △강원 생활안전 이의신 △강원 여성청소년 김종철 △강원 수사1 한상균 △강원 형사 김희중 △강원 경비교통 박동현 ◇실장 △강원 112종합상황 류성호 ◇서장 △강원 강릉 이용완△강원 원주 정인식 △강원 태백 이종규 △강원 영월 엄기영 △강원 정선 김진환 △강원 홍천 김숙진 △강원 평창 이규문 △충북 홍보담당관 정창옥 ◇과장 △충북 경무 이광숙 △충북 생활안전 박수영 △충북 여성청소년 김민호 △충북 형사장성원 △충북 경비교통 홍석기 △충북 정보 엄성규 △충북 보안 김의옥 ◇서장 △충북 옥천 이우범 ◇담당관 △충남 홍보 이후신 △충남 청문감사 이자하 △충남 정보화장비 배병철 ◇과장 △충남 경무 김호승 △충남 생활안전 김보상 △충남 여성청소년 김진태 △충남 수사 양윤교 △충남 형사 전준열 △충남 경비교통 마경석 △충남 보안 조규향 ◇대장 △충남 세종청사경비 손종국 ◇서장 △충남 천안서북 이문국 △충남 서산 김석돈 △충남 아산 신주현 △충남 공주 이안복 △충남 보령 이호영 △충남 홍성 구재성 △충남 세종 이상수 △충남 부여 서정권 △충남 금산 이병환 ◇담당관 △전북 홍보 윤중섭 △전북 정보화장비 강황수 ◇실장 △전북 112종합상황 박정근 ◇과장 △전북 여성청소년 최성규△전북 경비교통 김병기 △전북 정보 함현배 ◇서장 △전북 익산 이동민 △전북 남원 박훈기△전북 김제 임상준 △전북 무주 한도연 ◇담당관 △전남 홍보 유윤상 △전남 청문감사 박희순 ◇과장 △전남 경무 이용석 △전남 생활안전 민성태 △전남 여성청소년 박상우 △전남 수사1 한원횡 △전남 형사 김광남 ◇실장 △전남 112종합상황 이수경 ◇서장 △전남 목포 안병갑 △전남 고흥 우형호 △전남 해남 고범석 △전남 장흥 황석헌 △전남 보성 곽영진 △전남 함평 이기옥 △전남 영암 강칠원 △전남 강진 박혁진 △전남 담양 최인규 △전남 완도 김병록 △전남 구례 이재천 ◇담당관 △경북 홍보 김상렬 △경북 청문감사 심덕보 △경북 정보화장비 김용현 ◇실장 △경북 112종합상황 양시창 ◇과장 △경북 여성청소년 이성호 △경북 형사 김병찬 △경북 경비교통 시진곤 ◇서장 △경북 포항북부 오완석 △경북 포항남부 정은식△경북 경산 최현석 △경북 안동 곽병우 △경북 칠곡 박봉수 △경북 의성 구희천 △경북 울진 김수룡 △경북 봉화 주의영 △경북 영양 구자용 △경북 군위 장종근 △경북 울릉 김해출◇담당관 △경남 홍보 이희석 △경남 청문감사 박이갑 ◇과장 △경남 정보화장비 백승면 △경남 생활안전 이태규 △경남 여성청소년 하재철 △경남 수사 김주수 △경남 형사 곽예환◇실장 △경남 112종합상황 황철환 ◇서장 △경남 마산동부 김정완 △경남 진해 박장식 △경남 거제 김영일 △경남 양산 박천수 △경남 사천 김동욱 △경남 밀양 주용환 △경남 거창 오부명 △경남 고성 정성수 ◇과장 △제주 경무 박채완 △제주 여성청소년 정성학 △제주 수사1 정경택 △제주 경비교통 고창경 △제주 정보 김학철 △제주 보안 고석홍 ◇실·단장 △제주 112종합상황실 김종식 △제주 해안경비단 한영록 ◇서장 △제주 동부 고성욱 △제주 서부 고평기 △제주 서귀포 유철 ◇경무과(대기) △서울 이희성 △부산 이노구 △인천 이성형 △광주 김도기 △경기 오동욱·김평재·최영덕·김창식·정용환 △강원 위강석 △충남 이한일 △전북 방춘원 △전남 안동준 △경남 김성우 △제주 강월진 ◇경무과(교육) △서울 양우철·연명흠·권태민·강기택 △부산 조정재 △광주 서완석·양우천 △대전 김종민·이민수 △울산 장근호 △강원 남정현·심헌규·박상경 △충북 김형섭·오지용·오승진·조성호 △충남 송병선·김낙동 △전북 오상택·최규운·전순홍 △전남 김종범 △경북 경성호 △경남 류삼영·김성철·최영철 △제주 문영근

◆전남도 〈승진〉 ◇이사관 △의회사무처장 임영주 〈전보〉 ◇이사관 △도민안전실장 정병재 ◇부이사관 △경제과학국장 최종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윤광수 △한국전력공사 지역협력관 서기원 ◇직무대리 △해양수산국장 김병주 △관광문화체육국장 이기환 △공무원교육원장 윤승중 ◇부시장 △목포시 이재철 △광양시 신태욱 ◇서기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김태환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박상석 △의회사무처 정책담당관 심남식 △도립도서관장 노래영 △총무과 대기 고영윤 ◇부시장·부군수 △나주시 이기춘 △담양군 홍성일 △고흥군 주순선 △영암군 김양수 △완도군 차주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승진〉 △부이사장 임득문 ◇이사 △글로벌판로본부장 이한철 △인력기술본부장 정진수

부음

▲강병산(삼보지질 창업주)씨 별세, 동균(현대건설 대리)씨 부친상, 송주석(삼성전자 책임연구원)씨 장인상 = 15일, 연세강남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9시, 02-2019-4003

▲주길치(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씨 모친상 = 16일, 여수 전남병원, 발인 18일 오전 8시, 061-642-4444

▲정용칠(한·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씨 모친상 = 16일, 경북 상주 효신전문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7시, 054-541-9007, 8006

▲이영철(나창국법무사사무실 사무장)·관배(동아전력 대표이사)·임상(중앙일보 티미디어센터 대표이사)·영찬(마한농협 과장)씨 모친상 = 16일, 광주역장례식장, 발인 18일 오전 9시, 062-264-4444

한국 영재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종합 3위

美·中 1·2위… 북한은 4위



한국 대표팀이 전세계 104개국 577명이 참가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종합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유성, 최재원, 김재형, 김채원, 주정훈, 김세훈군.
사진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세계 수학 영재들이 겨루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IMO)에서 한국 대표팀이 종합 3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북한도 한국 대표팀에 이어 종합 4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달 4일부터 13일간 열린 '2015년 제56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팀이 종합 3위의 쾌거를 이뤄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104개국 577명이 참가했으며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수상해 종합점수 161점으로 지난해 종합 7위에서 종합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송용진 인하대 교수가 단장이 된 한국팀에는 김세훈(서울과학고 1학년), 김재형(서울과학고 3학년), 김채원(서울과학고 3학년), 이유성(서울과학고 2학년), 주정훈(서울과학고 2학년), 최재원(서울과학고 1학년) 학생이 출전해 실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한국 대표팀의 뒤를 이어 종합점수 156점으로 4위를 달성해 남북이 나란히 선전했다

미국이 종합점수 185점으로 1위에 올랐고, 중국은 종합점수 181점으로 2위를 달성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

"수익률 개선 올인… 종합운용사 자리매김"

송성엽 브레인운용 대표 취임



"중장기적으로 리테일 공모펀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고객 수익률 개선에 올인한 다음 종합운용사로서의 밑거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브레인자산운용 송성엽 신임 각자 대표는 16일 여의도 브레인자산운용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단독으로 만나 취임 포부를 밝혔다.

KB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를 지낸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임시주총과 이사회를 통해 브레인자산운용의 신임 각자 대표로 선임됐다. 송 대표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자산운용과 영업 전반을 총괄한다. 기존 박건영 대표는 사모펀드(PEF) 등 신사업 발굴과 중장기 성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선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대체투자 부문도 중장기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며 "실제 주식에만 의존하다 보면, 급락장세에 직면할 때 수익 기반이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운용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헤지펀드와 일임, 자문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브레인자산운용도 리테일 공모펀드 운용 매니저로 최정상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송 대표를 영입해 중장기적으로 종합운용사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김경아 기자 kakim@

故 정주영 회장 여동생 정희영 여사 별세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유일한 여동생인 정희영 여사가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정 여사는 현대그룹 '창업공신'으로 고 정 명예회장이 평소 '기계박사'로 불렀던 고 김영주 한국프랜지공업 명예회장의 부인이다.

1925년 강원도 통천군 송전면 아산리에서 아버지 정봉식씨와 어머니 한성실씨의 6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유족으로는 장남 김윤수 한국프랜지 회장, 차남 김근수 후성그룹 회장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이며 발인은 20일 오전 9시다. 장지는 남편 고 김영주 명예회장과 같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이다.

김범근 기자 nova@

대중문화 노출의 법칙

섹시경쟁 '앗 뜨거' 벗어야만 뜨나요

걸그룹 핫팬츠·망사 등 '노출 대전'
선 지키면 약이지만 수위 넘으면 독
'연예 생존전략' 무조건 비난 어려워

파격적인 옆트임 의상 사이로 여인의 하얀 속살과 골반 라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자니 민망함이 앞선다. 파격 노출의 주인공은 최근 컴백을 앞둔 걸그룹 '스텔라(효은·민희·가영·전율)'다. 이들의 소속사 디엔터테인먼트파스칼은 스텔라의 컴백에 앞서 파격적 노출을 감행한 재킷 이미지와 티저 영상을 차례로 공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걸그룹 사이에선 '노출 없이는 뜰 수 없다'는 새로운 법칙이 성립됐다. 과도한 노출 경쟁은 걸그룹을 눈요깃거리로 전락시키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시켰다. 올해 걸그룹 대전은 '노출 대전'으로 불릴 만큼 적정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내 대중문화에서 노출이 일반화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국내 첫 베드신이 담긴 영화 '춘몽(1965년·유현목 감독)'에서는 여배우가 살색 타이즈를 입고 촬영했지만 감독은 외설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을 만큼 노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졌다.

비슷한 시기의 다른 영화에서도 베드신 장면에선 배우들이 모두 옷을 입고 촬영을 해야 했다. 노출 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물레방 아가 돌아가는 장면이 표출되거나 천둥번개가 치는 장 면, 또는 믹서기가 돌아가는 장면 등으로 노출 신을 대신했다.

그렇게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올해로 '춘몽'이 제작된 지 꼭 50년이 됐다. 국내 대중문화는 반세기 동안 노출로 인한 예술과 외설의 경계선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펼치며 변화해왔다. 그러는 사이 대중의 입맛은 까다로워졌고, 노출에 대한 욕구는 강해졌다. 이젠 노출이 대중문화의 일부라도 되는 듯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실제로 노출은 대중문화의 흥행전선에서 막대한 파급력을 입증했다. 스타들이 경쟁적으로 노출 수위를 높여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데뷔나 컴백을 앞둔 스타들은 더 그렇다. 걸그룹 포미닛은 올해 초 '미쳐' 뮤직비디오에서 농도 짙은 안무를 선보이며 화제를 낳았고, 작지만 강렬한 카리스마를 지닌 가인은 보디슈트와 올인원 망사스타킹으로 섹시미를 발산했다.

사실 스타라는 존재 의미를 따지고 보면 스타들의 성 상품화를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비난의 화살은 대부분 제작사와 걸그룹에게 쏠리지만 그들에겐 그것마저도 마케팅이자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불황일수록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는 말도 옛말이다. 요즘은 경기에 상관없이 더 짧고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 대부분의 스타는 노출을 통해 자신의 숨은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을 어필하는 기회로 삼는다. 그래서 노출은 적정 수위를 넘지 않으면 약으로 통한다. 하지만 '적정 수위'라는 모호한 기준 속에서 스타들의 벗어던지기 경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어디까지가 적정이고 어디부터가 위험수위인지 알 수 없는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이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감행되는 스타들의 벗어던지기 경쟁,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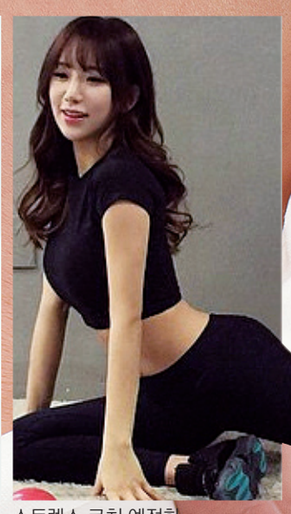
오상민 기자 golf5@


씨크릿 전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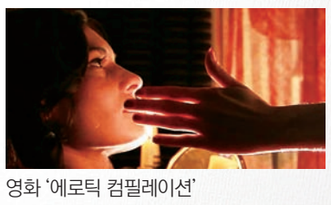

걸스데이 민아



배우 오인혜


스트렝스 코치 예정화

예술과 외설의 차이는 '스토리'


영화 '에로틱 컴필레이션'

지난 9일 개봉한 영화 '에로틱 컴필레이션'은 다수의 실제 정사 장면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작품이다. 이 영화는 여성 감독들이 참여했음에도 표현 수위가 너무 높고 적나라해서 국내에 소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월 개봉해 극장가 화제의 중심에 선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수위 높은 베드신으로 국내 박스오피스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변태적 성행위 등 영화 속 적나라한 표현은 이내 외설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한국 정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흥행에 실패했다.

이처럼 노출이 동반된 수위 높은 애정신을 담은 영화는 언제나 예술과 외설의 경계에 서 있다. 이 같은 작품들을 예술로 봐야 할지, 외설로 봐야 할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감각의 제국'(1976), '나인 송즈'(2004), '올 어바웃 안나'(2005), '님포매니악 볼륨2'(2013) 등 과격한 정사신을 다뤄 논란을 일으킨 영화들은 모두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주제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예술과 외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가장 객관적인 구분 지표로 스토리의 유무를 꼽았다. 김상호 영화평론가는 "스토리가 있는 것은 격한 성적 표현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불법 음란물처럼 어떤 행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극에 등장하는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미를 확대하면 성적인 표현이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할 때도 외설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속에 담긴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본 관객이 느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관객이 있어야 영화도 있다'는 영화의 존재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에로틱 컴필레이션'의 수입 배급을 맡은 S&S 측은 "성적인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아 여성들의 심리를 탁월하게 표현해 여성들이 더 공감할 수 있다. 나아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궁금해하는 남성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여성의 성을 이해하는 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조금만 더… 더… 더… ‘흥행의 유혹’

대중문화 노출, 어디까지 왔나

‘마담 뺑덕’ 정우성 20년 만에 전라 연기
김고은 ‘은교’에서 파격 베드신 연일 화제
신인이 벗으면 눈도장에 스타 반열 기대
개연성·스토리 부족한 노출 관객들 외면

노출은 이미 하나의 트렌드다. 대중문화에서 노출은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늘 상존해왔다. 노출로 인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사회적인 파문을 불러일으킨다고 해도 ‘흥행’만 된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만큼 노출은 대중문화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영화, 드라마, 가요 분야에서 노출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상업적인 이윤 추구가 목표인 영화는 노출을 자주 사용한다. 영화에서 노출은 남녀 배우의 베드신이 될 수 있고, 상반신 혹은 하반신 등 올 누드 노출도 포함된다. 지나치게 ‘야하다’고 판단되면 19금 영화로 아예 성인들을 위한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그런 경우 표현이나 노출은 어느 정도 용인된다.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영화에서 노출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영화 예고편에서 노출 장면을 부각시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다면 ‘흥행’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하지만 영화의 개연성이 부족하거나 스토리가 빈약하고, 주연들의 연기가 ‘허접’하다면 일찌감치 개봉과 동시에 IPTV로 직행할 수 있다.

정우성은 영화 ‘마담 뺑덕’에서 전라 노출을 감행했다. 연기자로 데뷔한 지 20년 만에 파격적인 노출이었다. 진한 베드신도 이어졌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그의 노출은 연기자로서 고민이 담겨 있는 시도였다. 이민기도 영화 ‘황제를 위하여’에 출연할 당시 이태임과 두 번의 격렬한 베드신을 찍었다. 이태임뿐만 아니라 이민기의 올 누드도 여실히 드러났다. 물론 남자 배우들보다는 여자 배우들의 노출이 더욱 더 주목받는다.

신인배우에게 노출은 작품과 감독을 믿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대중에게 각인이 된 후, 후속 작품에서 좋은 평가를 얻는다면 스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김고은은 영화 ‘은교’에서 김무열과 파격적인 정사신으로 화제가 됐으며, 임지연도 영화 ‘인간중독’에서 송승헌과 불륜의 사랑을 연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두 사람은 새로운 작품에서도 격한 정사신을 벌여 화제가 됐다.

드라마는 영화보다 제약이 심하다. 케이블보다 공중파에서 방송하는 드라마가 조금 더 규제와 제약이 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수위가 변하고 있지만, 드라마 속에서 노출은 규제가 많다.

드라마에서 주된 노출은 배우의 샤워신, 키스신이다. 베드신은 간혹 드라마에 삽입되기는 하지만 수위는 낮은 정도다. 최근 ‘상류사회’에서 유이와 성준의 키스신이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실제 연인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키스’가 눈길을 끈다. 조여정은 ‘이혼 변호사는 연애중’에서 자신의 스타킹을 벗는 장면이, 이유비는 ‘밤을 걷는 선비’에서 가슴골이 드러난 장면을 통해 묘한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가수들의 노출은 음악 프로그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가수 대부분은 짧은 팬츠와 스커트로 맨 다리를 드러내고, 크롭 탑으로 섹시한 매력을 발산한다. 누가 더 짧은지 경쟁이라도 하듯, 여가수들의 의상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퍼포먼스도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안무가 주를 이룬다. 가슴, 엉덩이, 골반을 부각시키는 안무는 노출 효과를 배가시킨다. 남자들은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는 의상으로 섹시한 자태를 뽐낸다. 실루엣이 보이는 의상을 입거나 상의를 찢는 퍼포먼스로 ‘여심’을 사로잡는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



20대도 울고갈 ‘비키니 몸매’

‘완판녀’ 김준희

가수에서 뷰티 전문가로… 성공 열쇠는 ‘몸’

가수의 꿈을 접고 패션 사업가, 뷰티 전문가로 변신한 김준희에게 ‘몸’은 재산 목록 1호다. 그에게 ‘몸’은 제2의 성공을 가져다준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준희가 입고 나온 비키니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쇼핑몰에서는 일찌감치 ‘완판’된다. 이제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그는 아직도 20대가 부러워하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김준희는 “사람들이 제 비키니 사진을 보고 부러워하는데 가끔은 민망하다. 어리고 몸매 예쁜 친구들이 많은데 저를 칭찬해주면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몸매 관리 비법에 대해 그는 “평소에 운동에 관심이 많고, 비키니 화보를 찍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닭 가슴살, 샐러드로 식단을 조절한다. 가급적 저염 음식 위주의 건강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운동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한 생활 체조라도 틈틈이 한다. 그 결과 김준희는 풍만한 가슴, S라인의 허리, 탄탄한 복근, 매끈한 다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

김준희는 “원래 피부가 까무잡잡하다. 태닝하는 것도 좋아해서 비키니를 입으면 더욱 섹시해 보이는 것 같다. 20대 때는 몸매 관리를 위해 운동을 했지만, 지금은 건강을 위해 더 열심히 운동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몸’ 관리에 신경 쓰자 그에게는 다수의 뷰티 프로그램 MC 제안도 왔다. 그는 ‘렛미인3’, ‘김준희의 트렌디 랭퀸쇼 시즌2’, ‘팔로우미2’ 등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패션, 뷰티 노하우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그는 이제 연예인 김준희보다는 패션, 뷰티 전문가이자 CEO 김준희로 더 유명하다.

김준희에게 ‘몸’은 돈, 건강, 행복을 가져다줬다. 현재 8살 연하남과 열애 중이고, 60여명의 에바주니 직원들을 위해서 건강에 힘쓰게 됐다. 사람과 교감을 통해 작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한다.

에바주니는 연매출 100억원대로 온라인 쇼핑몰 이외에 건대, LA에 오프라인 매장도 있다. 또한, 김준희는 수익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환갑 때도 쇼핑몰 모델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준희는 “아마 60세까지는 하지 못할 것 같다. 대중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하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섹시하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

노출보다 ‘몸매’ 강조

男心 사격 예정화 “빵~ 떴어요”



페이스북에서 사격장에서 총을 어깨에 걸치고 있는 ‘사격녀’의 사진이 화제가 됐다. 길쭉한 다리와 잘록한 허리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진 속 주인공은 예정화다. 예정화는 노출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벗은 몸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몸에 달라붙는 트레이닝복으로 몸매를 강조했다. 예정화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트니스 영상을 공유했다. 그는 시선을 사로잡는 의상과 피트니스 동작으로 페이스북 스타가 됐다. 점차 건강프로그램 등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던 예정화는 미식축구 월드컵 국가대표팀 스트렝스 코치가 돼 주목받았다. 이어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다.

예정화는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숨은 인기인이다. 한 번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경험한 예정화는 두 번째 합류에 ‘예정화 배 육탄 체육대회’ 코너를 준비했다. 그는 운동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몸매를 노출했다. 그의 사진에 제기되는 포토샵 수정 의혹에 대해서도 “조금씩 한다”며 털털하게 인정했다. 예정화는 인간미를 내보이며 노출에만 집중되던 관심을 넓게 확장했다. 결국 네티즌 투표에서 김구라를 꺾고 2위를 차지했다. 예정화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하차한 후에도 ‘라디오 스타’ 등에 출연해 꾸준히 관심받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살색의 향연' 과유불급

〈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하다〉

여배우 섹시 이미지 족쇄될 수도
걸그룹 몸매 경쟁에 음악성 묻혀



영화 '인간중독'.

살색의 향연이다. TV, 영화, 가요 속 몸매 노출은 여전히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 같은 대중문화 전반의 몸매 노출은 두 얼굴을 지닌다. 점차 강도를 더해 가고 있는 연예인과 대중문화 속 노출은 독일까, 약일까.

정신보다는 몸 중심 문화로의 전환, 표현의 자유 신장, 치열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 연예인의 노출 강도는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노출은 단시간 내 존재감과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섹시와 노출의 이미지는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함정으로 작용한다. 영화제나 시구, 제작발표회 등 각종 행사에서 잦은 노출로 단번에 눈길을 끈 클라라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이미지 변신에 한계를 드러내 연기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노출의 약과 독, 양면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신인 여배우는 스크린 속 노출신을 통해 존재감을 굳힌다. 강도 높은 자극은 무명의 연기자를 대중에 빠르게 각인시킨다. 이름을 알리는 데는 용이한 반면, 굳어진 노출 이미지를 족쇄처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 '순수의 시대' 강한나, 영화 '봄' 이유영, 영화 '간신', '인간중독' 임지연 등의 경우, 최근 데뷔작부터 파격적인 몸매 노출을 감행해 주목받은 신예다. 이들은 기존의 이미지를 재생산할지, 스펙트럼을 넓힐지 또 다른 숙제에 직면한다.

아울러 노출의 양면성은 배우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다. 걸그룹의 지나친 노출 의상이 대표적 예다. 노래 실력과 무대 퍼포먼스로 인정받아야 할 가수가 선정적인 노출 의상으로 관심을 끈다면 성 상품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또한 눈길을 끌기 위한 강도 높은 섹시 전략으로 인해 가수의 빼어난 가창력이나 음악 완성도를 놓치게 하는 것도 노출의 문제점 중 하나다.

반면 같은 몸매 노출이라도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활약한 예정화 코치의 경우, 노출을 몸매를 다지는 운동 방법으로 활용해 각광을 받았다. 노출의 긍정적 활용의 예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똑같은 몸매에 대한 관점이라고 해도 콘텐츠로 접근하느냐, 단지 전시되는 성 상품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효과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파격 노출' 아이콘, 레이디 가가

'파격 노출'은 팝가수 레이디 가가와 떼어 놓을 수 없는 단어다.



전신 망사·투명 수영복 화제
"패션·행위예술 음악의 일부"

레이디 가가는 14일 인스타그램에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비행기 안에서 흰색 망사 옷을 입고 포즈를 취했다. 민망한 의상이지만, 몸매를 자랑하기 위한 노출이라기보다는 행위 예술의 한 장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이다. 이날 레이디 가가는 이 의상을 입고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열린 움브리아 재즈 페스티벌로 향했다.

2008년 'The Fame'으로 데뷔한 레이디 가가는 음악과 함께 독특한 패션으로 주목받았다. 활자가 인쇄된 종이로 중요 부위만을 간신히 가린 의상을 입는가 하면, 수녀복을 콘셉트로 잡은 투명한 수영복을 입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충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패션으로 레이디 가가는 2012년 타임지가 선정한 '역사상 100인의 패션 아이콘'에 이름을 올렸다.

레이디 가가의 파격적인 패션은 그의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23일 뉴욕에 등장한 레이디 가가는 청색 핫팬츠를 입고 상의는 속옷과 재킷만을 걸친 채 거리를 활보했다. '시스루'가 아닌 속옷만을 입고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레이디 가가의 패션이 항상 노출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2014년 토니 베넷과 함께 재즈 공연을 펼칠 때는 1980~90년대 재즈 가수를 연상시키는 금색 홀트넥 드레스를 선보였다. 2015 오스카 아카데미에서는 은색 드레스를 입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메들리를 노래해 청중을 놀라게 했다.

레이디 가가는 "의상을 위해 음악을 만든다", "음악은 행위 예술, 패션, 퍼포먼스 등이 모두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독특한 그의 노출이 음악의 일부분임을 드러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맨살 드러냈더니 신인이 스타됐죠



지난해 청룡영화상에서 몸 전체의 옆라인이 모두 파인 드레스를 입어 주목을 받았던 신인 배우 노수람. 뉴시스

여자배우들 왜 툭하면 노출하나

지난 2011년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의 주인공은 송강호·최민식 등 연기파 배우도, 전도연·손예진 등 관록의 충무로 여배우도 아닌 신인 배우 오인혜였다. 오인혜는 가슴이 그대로 드러난 노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지난해 청룡영화상에서 신인 배우 노수람은 여우주연상 천우희만큼 영화제 화제의 주인공이었다. 당시 노수람은 몸 전체의 옆 라인이 모두 파인 드레스를 입고 파격 노출로 주목받았다. 노수람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기록하며 웬만한 수상자 못지않은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오인혜와 노수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배우의 노출은 순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 스타 등용문으로 인식된다. 매번 영화제와 시상식이 있을 때면 노출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가 등장했고, 이름도 모르던 신인 여배우는 한순간 스타가 되어 각종 화보 촬영과 신작에 이름을 올렸다.



영화 '바리새인'에 출연한 달샤벳의 비키.

신인 오인혜·노수람 노출로 떠
미달이 베드신 찍은 '꽃보다…'
VOD 부가판권 큰 수입 올려

배우들 '스타 등용문'으로 인식
소속·제작사 마케팅 수단 활용
"반짝스타일뿐" 부정적 시각도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도 노출은 이슈몰이에 있어 최적의 장치였다. 제작자들은 작품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베드신 등 노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근에는 IPTV 상영의 활성화로 노출 마케팅을 펼치는 작품들이 노골적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개봉도 안 하고 바로 안방 상영으로 직행하는 작품도 허다했다. 걸그룹 달샤벳의 리더였던 비키는 영화 '바리새인'(2014)에서 노출 베드신으로 주목받았고, 해당 작품은 수많은 흥행작을 제치고 VOD 시청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미달이' 김성은이 파격 노출 베드신을 선보인 영화 '꽃보다 처녀귀신'(2015) 역시 VOD 서비스를 시작한 지 수일 만에 엄청난 부가판권 수입을 올렸다. 이 외에도 개그우먼 곽현화와 하나경의 노출 연기가 돋보인 '전망 좋은 집'과 여민정의 '가자, 장미여관으로' 등의 작품은 VOP시장에서 엄청난 판권 수입을 올려 극장가 박스오피스 부럽지 않은 흥행작으로 거듭났다.

이처럼 '노출'이 곧 '경제적 효과'로 귀결되다 보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출이 경쟁적으로 일어났다. 신인 여배우뿐만 아니라 소속사, 제작사, 배급사, 광고주 등의 노출 종용이 공공연히 계속되고 있다.

데뷔 10년째를 맞은 여배우 A양은 "재능 있는 사람이 많으니 '노출로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달콤한 유혹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인혜는 레드카펫 노출에 대해 "신인이다 보니 사진 한 장이라도 더 찍히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노출로 얻은 인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생명력이 짧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연기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김진호 대중문화평론가는 "수많은 스타가 노출로 반짝 스타가 됐고, 2~3년 내에 대중에게서 멀어졌다" 면서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실력"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www.childfund.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당신의 하루에는
미래가 보이나요?
누군가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을 하지만 누군가는 더불어 행복하기 위한 일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로 당신의 하루하루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어보세요.
어린이를 도울 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어린이를 돕는 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세요.


정기후원 1588-1940

전세계 독점/한국 최초 판매

CARVEN
PARIS

a Présent

가장 의미있는 **선물**은 바로 지금, **이순간**입니다



'고객감사 특별이벤트' 까르뱅에서 특별한 **50분**께 전해 드립니다



기계식 무브먼트 느낌의
역동성을 살린 회전반월

9 날짜표시 기능과
기하학적 패턴식



White



Black

까르뱅에서 선보이는 **에펠컬렉션(남성용)**은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 모티브인 모델이며, 3중 레이어 다이알의 기하학적 패턴과 기계식 무브먼트의 느낌을 보다 감각적이고 엣지있게 구현한 제품입니다. 특히 6시 방향의 기하학적 패턴의 추를 회전시켜 가벼운 소리와 함께 기계식 무브먼트의 역동성과 감성을 살렸습니다.

35,800원X카드 무이자 6개월 혜택 | 24시간 무료 주문 **080-210-5500** | 온라인 구매 **www.arambi.kr**



웹툰 원작 아니면 리메이크

'창작 드라마'가 안보인다

기존팬 끌어모아 시청률 보장
"만들기 쉽다" 방송사들 선호
완성도 떨어지면 팬들이 외면
'미생' 제외하곤 성적 시원찮아

"제작·방송사 원작찾기에 혈안
신인작가 발굴·처우개선 필요"

'심야식당' 일본 원작(위)과 리메이크 드라마.

인기 웹툰이나 만화 혹은 해외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이른바 '원작 있는 드라마'들이 드라마 편성에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작품 대부분은 드라마로 제작되었거나 제작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오렌지 마말레이드', MBC '밤을 걷는 선비'는 모두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 올 상반기에 방송된 SBS '하이드 지킬, 나', '냄새를 보는 소녀', tvN '호구의 사랑', '슈퍼대디 열', '구 여친 클럽' 등도 동명의 웹툰이 원작이다. 하반기에는 SBS '용팔이', '저녁 같이 드실래요', tvN '치즈인더트랩'이 드라마로 제작될 예정이다.

해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작품도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SBS '너를 사랑한 시간'은 대만 드라마 '아가능불회애니'를 리메이크했고, SBS '심야식당'은 일본 원작 만화를 기반으로 한 현지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것이다.

'원작 있는 드라마'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원작이 가진 기존의 팬들을 시청자로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팬층이 형성돼 있는 작품들은 이미 제작 과정에서부터 대중의 큰 관심을 받기 때문에 보다 실패 확률을 낮춰준다. 특히 웹툰의 경우 참신한 소재들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으며, 소설에 비해 드라마로 재구성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방송사나 제작사 입장에서 선호한다.

그러나 최근 tvN '미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작 있는 드라마'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시청률 성적표를 받고 있다. 기존 팬층을 업고 간다고 할지라도 작품의 완성도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외면당한다.

한상덕 대중문화 평론가는 "특히 해외 웹툰과 드라마가 한국에서 방영되기 위해서는 한국적 정서를 고려한 리메이크 작업이 이뤄진다"며 "이 과정에서 원작을 만든 나라의 문화와 전통, 관습 등을 무시한 채 어설픈 한국화로 흥행에 실패하는 작품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영 중인 SBS '심야식당'이 한국의 정서를 고려해 게이바 마담, 스트립 댄서 등의 캐릭터를 삭제하고 대체 캐릭터를 등장시켰지만 시청자의 혹평을 받는 이유다.

결국 '원작 있는 드라마'의 포화상태는 한국 드라마가 직면한 위기를 말한다.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시청률이 보장되는 원작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작가들의 순수 창작물이 대중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었다.

이어 한상덕 대중문화 평론가는 "다채널, 다매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스타 작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시청률이 보장되려는 것만 찾는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안일한 태도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 작가들의 순수 창작물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신인 작가 발굴 시스템과 작가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스타 스타를 말하다 천우희가 말하는 천우희

"배역 비중보단 시나리오가 중요 청룡상 이후 선택의 폭 넓어졌죠"



'손님'서 수줍은 과부 역할 일부러 살 찌워 성숙함 표현

안녕하세요. 배우 천우희입니다. '한공주' 이후 영화 '손님'으로 인사드리게 됐어요. 저는 극중 신내림을 기다리는 선무당 미숙 역을 맡았습니다.

전작에서 제 나이보다 어린 역을 주로 하다가 젊은 과부를 연기하게 되어 어려움도 있었어요. 특히 미숙은 시나리오에서 표현된 부분이 적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인물이었죠.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 구성을 새롭게 해보려고 했어요. 수줍고 어리숙한 성격과 숨죽여 사는 모습 등 모든 것을 대사 한 마디, 눈빛 하나에 내포해야 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시나리오의 독특함이 좋아서 도전의식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류승룡 선배님과 로맨스 호흡이 잘 맞을지 겁이 났어요. 성숙한 여인을 표현하기 위해 목소리 톤을 바꿔보려 했지만, 인위적으로 나이 든 연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살을 찌워 겉모습에 변화를 줬어요.

손님' 결말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쥐가 더 많았습니다. 몇몇 관객들께서 쥐가 너무 많아 징그럽고 무섭다고 하는데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청룡영화상 이후 시나리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기회가 많아졌어도 저에게 역할의 비중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을 믿는 편이죠. 제가 흥미롭고 재밌게 받아들이면 관객들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손님' 역시 시나리오를 접하고 '참신하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니 배우로서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삶에 어려움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수상 전후의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쓰니 스스로 갇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어느 순간 해탈하게 됐어요. 예전처럼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연기해야죠.

글/최두선·사진/신태현 기자 sun@





'행동파 형사' 황정민 VS '악인 검객' 이병헌 VS '청부살인업자' 하정우

무더위 식혀줄 '액션 3인방' 떴다

충무로 대세 남자 배우들이 올 여름 극장가를 풍성하게 만들 영화로 돌아온다. '협녀, 칼의 기억'의 이병헌, '암살'의 하정우, '베테랑'의 황정민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이들의 컴백 소식에 영화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병헌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악마를 보았다',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을 통해 충무로 대체 불가 배우로 자리매김한 것은 물론, '지.아이.조' 시리즈, '레드: 더 레전드', '터미네이터 제니시스'로 가장 성공적인 할리우드 진출 배우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그가 8월 13일 개봉을 앞둔 '협녀, 칼의 기억'에서 매혹적인 악인이 되어 돌아왔다.

이병헌은 천출의 신분에도 탁월한 검술과 빼어난 지략으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유백으로 변신한다. 이병헌은 "대부분의 액션을 직접 했다. 이렇게 와이어를 많이 사용한 촬영은 처음"이라고 밝히며 "고난도 액션과 빗속 격투 등 다양한 액션 장면을 대역 없이 소화해냈고, 나중엔 오히려 즐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추격자', '더 테러 라이브', '허삼관' 등 배우와 영화감독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하정우는 영화 '암살'에서 암살단을 쫓는 청부살인업자 하와이 피스톨로 분했다. 하정우는 "오달수 선배와는 첫 만남이지만 항상 함께 하는 가족 같은 편안한 느낌이었다. 그에 대한 무한한 신뢰 덕분에 하와이 피스톨 캐릭터가 완성될 수 있었다"며 오달수와의 남다른 연기 호흡에 대한 만족감을 전했다.

'국제시장'을 통해 1000만 배우로 등극한 '믿고 보는 배우' 황정민은 안하무인 유아독존 재벌 3세를 쫓는 베테랑 광역수사대의 활약을 그린 범죄오락액션 '베테랑'으로 돌아온다. 2013년 영화 '신세계'에서 "드루와"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신드롬을 이끈 배우 황정민은 '베테랑'에서 약자에겐 부드럽고, 강자에게는 강한 행동파 광역수사대 서도철 역을 맡아 거친 에너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베테랑'의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돈은 없어도 '가오'까지 잃어선 안 된다고 믿는 베테랑 형사 서도철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대 앞에서도 앞뒤 재지 않고 겁먹지 않는 저돌적인 모습으로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이끈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sun@



기세등등 한화…'연봉킹' 김태균 있기에

출루율 0.491로 3년 연속 1위 기록…홈런 17개 등 맹활약

삼성·NC·두산 선두 경쟁…테임즈·박병호 홈런왕 레이스

한화 이글스의 기세는 좀처럼 꺼질 줄 모른다. 김태균(33)이 그 중심에서 든든하게 팀을 이끌고 있다.

한화는 김성근(63) 감독이 사령탑에 오르며 지난 시즌 꼴찌팀에서 올해 4강을 바라보는 강팀으로 변모했다. 44승 38패(승률 0.537, 14일 기준)로 리그 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팀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었다. 시즌 초반 외국인 타자 나이저 모건(35)을 방출하고 제이크 폭스(33)를 영입했지만, 폭스마저 부상으로 이탈해 외국인 선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최진행(30)이 금지 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아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 주장 김태균은 한화 타선을 묵묵히 지켰다.

이번 시즌 김태균은 15억원을 받으며 최고 연봉자에 올랐다. 최정(28·SK 와이번스), 강민호(29·롯데 자이언츠·이상 10억원) 등 2위에 오른 선수와 5억원 차이가 나는 금액이지만, 김태균은 올해 비싼 몸값에 걸맞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14일까지 76경기에 출전해 시즌 타율 0.344로 KBO리그 4위에 올라 있다. 출루율은 0.491로 에릭 테임즈(29·NC 다이노스·0.462)를 제치고 리그 1위다. 2012시즌부터 3년 연속 출루율 1위를 기록한 김태균은 올해도 출루왕을 노린다.

김태균은 장타력도 갖췄다. 장타율 0.660으로 2루타 17개, 홈런 17개를 기록 중이다. 다만 7월에는 2루타 2개, 홈런 1개에 그쳤다. 하지만 타점 10개로 장타감각이 떨어져도 팀에 버팀목이 된다. 출루율과 장타율을 더한 OPS는 1.151에 달한다. 통상 OPS가 0.950을 넘으면 일류 선수로 분류한다. 이번 시즌 KBO리그에서 OPS가 1.100을 넘는 특급 선수는 4명으로 김태균은 2위에 올랐다. 에릭 테임즈가 OPS 1.240로 1위다.

한편 이번 시즌 전반기 선두권을 두고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 두산 베어스가 치열하게 다퉜다. NC 다이노스는 14일 삼성 라이온즈를 제치고 18일 만에 리그 선두를 탈환했다. 테임즈는 이날 시즌 28호 홈런을 터트려 박병호(29·넥센 히어로즈)와 함께 홈런 1위에 올라섰다. 두산은 2위로 밀려났다. 댄 블랙(28)을 영입해 타선을 강화한 KT 위즈는 시즌 초반의 부진에서 벗어나 어느새 승률을 0.333까지 끌어올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KBO 올스타전 내일 오후 7시 수원KT위즈파크서 "플레이볼"



수원벌 ★들이 쏟아진다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18일 오후 7시 경기 수원의 수원KT위즈파크에서는 2015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이 열린다.

SK·삼성·롯데·두산·KT로 구성된 드림 올스타(감독 류중일)와 KIA·한화·NC·LG·넥센이 뭉친 나눔 올스타(감독 염경엽)의 대결로 펼쳐지는 이날 올스타전에는 올 시즌 상반기를 빛낸 베스트12와 감독 추천 선수 12명, 팀당 24명의 톱 플레이어가 꿈의 무대를 누빈다.

드림 올스타는 투수 김광현, 정우람(이상 SK), 임창용(삼성), 포수 강민호(롯데), 1루수 구자욱, 2루수 야마이코 나바로(이상 삼성), 3루수 황재균(롯데), 유격수 김상수, 외야수 최형우(이상 삼성), 김현수, 민병헌(이상 두산), 지명타자 이승엽(삼성)이 베스트12로 출전한다.

이에 맞서는 나눔 올스타는 투수 양현종(KIA), 박정진, 권혁(이상 한화), 포수 김태군, 1루수 테임즈(이상 NC), 2루수 정근우(한화), 3루수 김민성, 유격수 김하성(이상 넥센), 외야수 김주찬(KIA), 이용규(한화), 유한준(넥센), 지명타자 이호준(NC)이 베스트12로 나선다.

올스타전 하루 전날인 17일에는 '올스타 프라이데이'로 KBO 퓨처스 올스타전과 홈런 레이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히 홈런 레이스에는 드림 올스타 대표로 이승엽, 나바로, 김현수, 황재균과 나눔 올스타 나성범, 이호준, 테임즈, 박용택이 나서 대포 경쟁을 펼친다. 홈런 레이스는 7아웃제로 치러지는 예선전을 통해 드림·나눔 올스타 각 팀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결승에 올라 10아웃제로 다시 한 번 승부를 가른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뮤지컬 엘리자벳 VIP 관람권 4매가 상품으로 수여되며, 준우승 선수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이와 별도로 최장 비거리를 기록한 선수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이 제공된다.

팀당 24명 톱 플레이어 '꿈의 무대'
오늘 홈런레이스 등 다양한 이벤트
이승엽·나병호·테임즈 등 대포 경쟁
김응용 감독 은퇴식서 공로패 전달

같은 날 열리는 퍼펙트 피처 대결에는 드림 올스타 임창용, 안지만(이상 삼성), 정우람(SK), 유희관(두산)과 나눔 올스타 조상우(넥센), 헨리 소사(LG), 해커(NC), 윤석민(KIA)이 참가한다. 우승자는 상금 200만원, 준우승은 100만원을 받는다.

18일 올스타전 당일 열리는 번트왕 대결에는 김상수, 김강민(SK), 박경수, 이대형(이상 KT), 김하성, 박동원(이상 넥센), 김태군, 이용규가 출전한다. 김응용 감독의 은퇴식도 열린다. 이날 프로야구 10개 구단 감독들은 공로패를 만들어 김응용 감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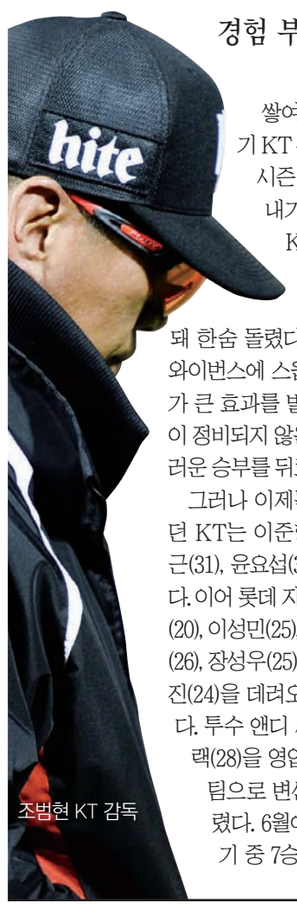
흥미로운 기록도 있다. 2008년 이후 7년 만에 별들의 잔치에 합류한 손민한은 KBO 올스타전 역대 최고령 투수 기록을 새로 쓰게 됐다. 올스타전 당일 기준 손민한의 나이는 40세 6개월 16일로, 2000년 올스타전에 베스트로 선정된 김용수(LG·40세 2개월 21일)를 넘어선다.

오상민 기자 golf5@

지난해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올스타전. 뉴시스

단비같던 우천취소 "부담 되네"

경험 부족한 KT, 후반기 경기 늘어…두산·SK·NC 등도 빠듯


조범현 KT 감독

쌓여가는 우천 취소 경기가 후반기 KT 위즈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시즌 초반 내린 비는 KBO리그 새내기 KT에 단비처럼 다가왔다. KT는 리그 첫 3연전에서 삼성 라이온즈에 2연패를 당했지만 3차전이 우천으로 취소돼 한숨 돌렸다. 이후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에 스윕패(3연전 전패)해 우천 취소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팀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팀과의 부담스러운 승부를 뒤로 미루게 됐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약팀이던 KT는 이준형(22)을 LG 트윈스의 박용근(31), 윤요섭(33)과 맞바꾸며 재편에 나섰다. 이어 롯데 자이언츠에 박세웅(20), 안중열(20), 이성민(25), 조현우(21)를 내주고 하준호(26), 장성우(25), 윤여운(25), 최대성(30), 이창진(24)을 데려오는 대형 트레이드를 감행했다. 투수 앤디 시스코(32)를 방출하고 댄 블랙(28)을 영입해 타선을 강화하며 새로운 팀으로 변신한 KT는 무섭게 기세를 올렸다. 6월에 11승을 쌓고, 7월에는 9경기 중 7승을 올렸다. 어느새 0.125까지 떨어졌던 승률은 0.333까지 올라왔다.

한창 승리를 쌓아 가는 KT 위즈는 우천 취소가 반갑지 않다. 특히 삼성에 2연승을 거둔 상황에서 취소된 12일 경기는 아쉬움을 더했다. 14일까지 우천 취소된 KT의 경기는 삼성과 3경기, NC 다이노스와 2경기, 두산 베어스와 2경기 등 총 9경기다. 이번 시즌 선두권 다툼을 벌이는 세 팀(삼성·NC·두산)과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기에 맞붙게 됐다. 선수층이 두껍지 않고, 경험이 부족한 KT는 빡빡해지는 후반기 일정을 소화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편, 우천 취소가 부담스럽기는 다른 팀도 마찬가지다. 우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55경기(14일 기준)다. 두산이 14경기로 가장 많고, SK와 NC가 13경기로 뒤를 이었다. 이번 시즌 KBO리그가 10구단 체제로 바뀌며 팀별 경기 수도 144경기(이전 128경기)로 늘어났고, 11월 8일에는 프리미어12가 개막해 잔여 경기를 해결할 시간이 빠듯하다. KBO는 월요일에 경기를 편성해 잔여경기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력과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더블헤더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예정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물놀이하고 책도 읽는 '북캉스' 어때요?

서점가 휴가철 이벤트 풍성

'궁궐의 우리나무' '파도야 놀자' 출판진흥원, 분야별 10권 추천

'조아라' 웹소설은 영웅물 다수

방수팩·포켓앨범·포인트 등 도서 구매하면 사은품 제공

'알라딘' 매주 e북 대여행사도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추천도서와 다양한 이벤트가 '북캉스족'을 기다리고 있다. 북캉스란 '북(book)'과 '바캉스(vacance)'의 합성어로 독서를 즐기며 휴가를 보내는 사람을 말한다. 여름 휴가 중인 직장인 또는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평소에 미뤄 뒀던 독서를 하는 경향으로 인해 만들어진 말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15 휴가철 추천도서'를 선정해 발표했다. 출판진흥원 좋은책선정위원회는 궁궐에서 자라는 나무 114종을 기록한 책 '궁궐의 우리나무'를 비롯해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으면 좋은 아동 그림책 '파도야 놀자', 방대한 중국인 이야기를 4권의 책에 종합적으로 담은 '중국인 이야기 1~4권' 등 분야별로 총 10권의 책을 추천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웹소설 사이트 조아라도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휴가철 읽기 좋은 웹소설' 목록을 공개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영웅물을 비롯해 시공간을 초월한 로맨스 판타지, 짜릿한 공포 스릴러 종류의 웹소설 등을 추천했다.

조아라 하승종 콘텐츠사업팀장은 "웹소설 독자의 경우 여름휴가나 여름방학 때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몰아 읽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여름철에 조회 수가 상승한다"며 "영화 '어벤져스'의 인기를 이어받아 올여름에는 화끈한 영웅물 판타지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점가에서는 '북캉스'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교보문고는 8월 20일까지 '2015 여름휴가, 함께하면 좋은책!'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도서를 5만원 이상 구매하면 전 고객에게 통합포인트 2000원을 증정하며 선착순과 추첨을 통해 사은품과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8월 20일까지 '아이 책을 담았다, 여름을 담았다' 이벤트도 열린다. 여름에 꼭 읽어야 할 어린이 책과 자녀교육서를 포함해 2만원 이상 구매 시 한정판 보르미올리 볼메이슨자를 증정한다.

인터파크도 30일까지 '휴가를 준비할 때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 기획전을 연다. '유시민의 논술특강', '답론', '송곳' 등 휴가 때 읽기 좋은 40여 권의 MD 추천 인문도서를 2만원 이상 구입 시 스마트폰 방수팩을 증정하며 이와 함께 휴가 때 읽을 만한 좋은 책을 댓글로 추천하면 추첨을 통해 도서상품권도 준다.

예스24는 8월 15일까지 '여름 휴가를 기억하는 방법' 이벤트를 통해 행사 도서 2만5000원 이상 구매 시 휴가 사진을 정리할 수 있는 포켓 앨범을 증정한다.

알라딘은 8월 31일까지 경제경영 전문기관이 추천하는 '휴가철 직장인 필독서' 기획전을 준비해 이벤트 대상 도서 2종 이상을 구매하면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준다.

또한 휴가철을 맞이해 28일까지 매주 eBook 4권을 1주일간 대여해 주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추천한 도서목록

	분야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문학예술	엄마의 뜰	최일옥	그물
2		시린 아픔	소피 칼/ 배영란	소담출판사
3	인문학	다시, 나무를 보다	신준환	알에이치코리아
4		조선 사람의 세계여행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글항아리
5		중국인 이야기(1~4)	김명호	한길사
6		하멜 표류기	헨드릭 하멜/ 김태진	서해문집
7	사회과학	사람을 남겨라	정동일	북스톤
8	자연과학	궁궐의 우리 나무	박상진	눌와
9	유아아동	파도야 놀자	이수지	비룡소
10	청소년	모두 깜언	김중미	창비

조아라가 추천한 휴가철 웹소설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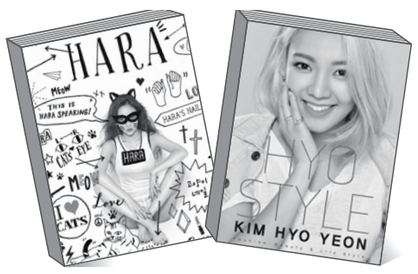
	분야	소설명	작가
1	영웅물	야구매니저	디다트
2	영웅물	나는 귀족이다	실탄
3	영웅물	갓 오브 블랙필드	무장
4	영웅물	고수가 갑이다	시준
5	로맨스	루시아	하늘바라기
6	로맨스	그라마타☆루디	호노라
7	로맨스	마탑의 웬수들	세싹
8	공포스릴러	Down-무차별 살인게임	아카네이아
9	공포스릴러	문고리를 잡아 돌려서	박D
10	공포스릴러	Unknown	백사

꾸준히 나오는 연예인 '패션·뷰티책' 왜?

구하라 '네일하라' 효연 '효스타일'…

최신 트렌드 선도 인식에 독자 수요

에세이보다 자신의 강점분야 집중



자신들의 취미를 글로 표현해 작가로 변신한 스타들, 일명 '엔터라이터(Entertainer Writer)'가 늘고 있다. 특히 뷰티·패션분야에서 이들의 출간은 더욱 두드러진다.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는 평소 자신의 취미인 네일아트로 지난달 12일 네일 에세이북 '네일하라(NailHARA)'를 출간해 작가로 데뷔했다. 구하라는 자신의 애완묘에서 영감을 받은 고양이 네일부터 북유럽풍의 다양한 네일 디자인 사진과 셀프 홈케어 방법 등을 책에 담았다.

소녀시대의 효연도 1일 평소 자신의 패션 스타일을 소개하는 책 '효 스타일(HYO STYLE)'을 출간했다. 효연이 만든 스타일 북 '효 스타일'에는 패션, 뷰티 등 다양한 스타일에 대한 효연의 생각과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

구하라와 효연 외에도 이미 앞서 수많은 연예인이 뷰티·패션분야에서 책을 출간했다. 과연 연예인들이 발간한 뷰티책이 실제 출판시장에서도 인기가 있을까. 인터파크 관계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구하라와 효연의 뷰티책은 각각 건강·뷰티 분야 주간 순위에서 5위와 11위에 랭크됐다"고 밝혔다. 예스24 김수연 취미실용 담당 MD는 "도서마다 다르지만 연예인들의 뷰티 책이라고 해서 월등하게 판매량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티와 패션분야에서 연예인들의 출간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수연 MD는 "연예인들의 패션이나 뷰티가 업계에서 가장 최신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며 "이를 알고 싶은 일반 독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예인들의 책 출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즘 연예인들의 뷰티책은 일반적인 에세이 형태가 아니라 구하라의 '네일하라'처럼 각자가 강점 분야에 집중, 그 분야를 대표하는 연예인으로 이름을 각인시키고 있다"며 "일반 독자들을 해당 뷰티 분야를 새롭게 조명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새로 나온 책

분석전문가가 말하는 빅데이터

김승범·최연임·김균표·박혜진 지음 | 다음생각 | 1만3000원



'분석전문가가 말하는 빅데이터'는 4명의 분석전문가가 기업 현장에서 경험한 빅데이터에 관한 솔직하고 생생한 사례가 담겨 있다.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기업 내부나 외부에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빅데이터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고자 고민하는 단계의 경영진, 의사결정자, 리더들에게 필자들의 경험을 살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앤서니 도어 지음 | 민음사 | 1만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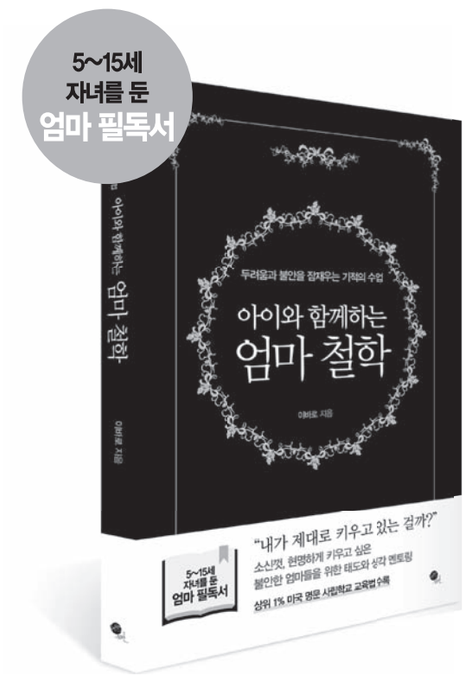


엔서니 도어 장편소설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은 2015년 퓰리처상 수상작으로 장님 소녀 마리로르와 고아 소년 베르너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겪는 10여 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아름다운 문체와 감동적인 플롯,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감 나는 묘사로 언론과 평단의 큰 주목을 받았다. 2014년 봄 출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1년 넘게 뉴욕타임스와 아마존 베스트셀러 순위권을 지키고 있으며,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 10권에 선정됐다. 또한 미국 내에서만 100만 부 넘게 판매되고 39개국에 판권이 팔리는 쾌거를 이뤘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리더〉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선택한 단 하나의 베스트셀러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우는 기적의 수업



보스턴 컬리지 출신 철학자
이바로 지음 | 312쪽 | 13,000원

아이와 함께하는
엄마 철학

좋은 대학은 보내야 하고, 남들 하는 만큼은
다 시켜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걸까?"
불안한 엄마들을 위한 태도와 생각 멘토링!

무한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Tel. 02-322-6144 / Fax. 02-325-6143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강퉁 투자 이렇게'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글로벌 투자 환경을 분석하고 기회를 탐색하는 '글로벌인베스터(GLOBAL INVESTOR) 여름호'를 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호에는 시행을 앞둔 선전-홍콩거래소 교차매매 '선강퉁'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선전거래소는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리며 IT, 헬스케어, 컨슈머 등 신성장 산업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작년 말 후강퉁이 시행되면서 홍콩을 통해 상하이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된 이후 이번 선강퉁을 통해서는 선전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커버스토리에서는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 단계를 되짚어보면서 선강퉁이 시장에 가져다 줄 의미를 생각해보고 중국증시 투자 방법에 대해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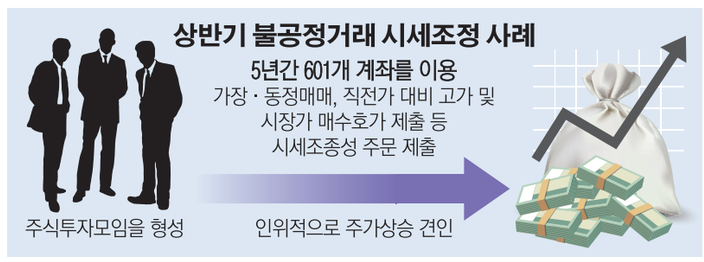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은 "글로벌인베스터는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의 소비 성장을 동력으로 삼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서 좋은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상반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살펴보니

'시세조종' 25건, 31.6% 껑충

5년간 투자모임 운영하며
601개 계좌로 매수세 유인
1169억원 부당이득 적발



'5년간의 장기 시세조종, SPAC 관련 합병정보 이용 행위, 기관투자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올해 상반기 나타난 불공정거래 방식이다. 시세조종은 상반기에만 25건이 발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1.6%나 증가했다.

17일 거래소가 밝힌 시세조종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살펴보면 개인투자자 중심의 주식투자모임이 조직된 후 장기 시세조종을 도모했다. 소액주주로 구성된 주식투자모임 전·현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종교모임, 동창회 등이 연계되어 약 5년간 지속적으로 매매에 관여하는 수법이 드러났다.

601개 계좌를 이용하여 3만6136회의 가장·통정매매, 5만318회의 직전가 대비 고가 및 시장가 매수호가 제출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상승을 견인해 1169억원 가량의 추정이득을 획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비상장법인 합병 추진 사실을 이용해 합병당사 관련자가 대규모 부당이득을 획득한 사례도 발생했다. SPAC와 비상장법인간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흡수 합병법인의 재무담당임원, 계열사 임직원, 주주 등이 '합병사실' 공개 전에 이용한 것이다.

기관투자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사례도 있다. C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는 A사 기발행주식수의 47.6%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 전일 및 공시 당일에 걸쳐 대규모 물량을 집중 처분해 40억원가량의 손실을 회피했다.

실질 사주 보유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고가매도 및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시세조종꾼에게 작전을 의뢰한 사례도 있다. 실질적인 사주와 혈연, 거래관계 등에 의해 연관된 자들이 대규모 BW신주인수권 행사후 신주 상장 직전 및 유상증자 청약일 직전 집중매매에 관여했다.

증권카페 등에서 허위·과장성 글을 게재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하는 사례도 전년 동기와 비슷한 횟수로 발생했다. 다수의 필명 및 ID를 동원해 마치 다른 사람인 양 반복해서 허위 사실을 게재·유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있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합리적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펀드온라인코리아, 경영소통 채널 '주주협의체' 구성

차문현 대표, CEO대상 증자 간담회… 규모·시기 등 논의

펀드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주요 주주들을 주축으로 주주협의체를 구성한다. 향후 주주들과 경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연내 2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효과적으로 단행하기 위해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지난 15일 금투협에서 28개 주주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증자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지난달 46개 주주사를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실무자급들을 대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온라인 실명 확인 △집합투자증권 인가 유지 등에 대한 당위성으로 증자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던 것.

이날 개최된 간담회에선 차문현 대표가 직접 증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자 계획 등 향후 효과적인 경영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조만간 주주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운용사 대표는 "펀드슈퍼마켓 첫 출범 당시 IFA 도입을 전제로 첫 해 1조원의 판매고를 예상했는데, 당초 여러 변수들을 생각지 못하고 주주나 펀드슈퍼마켓 사무국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사업계획을 짰던 것 같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나 이런저런 상황을 듣고 보니 주주협의체를 구성해 증자 규모부터 시기, 계획 등 다시 잘 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펀드온라인코리아 측은 "아직 주주협의체 멤버나 구성 시기는 미정"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매 채널로 성장하겠다는 펀드슈퍼마켓 설립 취지에 맞게 주주들의 뜻에 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블랙록 "하반기 채권보다 주식"

美기준금리 인상 불확실성에
국가·업종·종목 등 신중해야
유럽·日·홍콩H주 시장 주목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드(BII)의 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 채권보다 주식이 유망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선호시장으로는 유럽과 일본, 홍콩 H주식을 꼽았다.

유원 캐머런 와트 BII 글로벌 수석투자전략가는 17일 "일부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고 미국의 긴축 속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국가와 업종, 종목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과 통화의 변동성은 이미 커졌고 주식 변동성도 뒤따를 전망이어서 전통적인 채권과 주식 분산투자 전략이 도전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채권보다 합리적으로 매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II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가을께 단기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국도 올해 11월이나 내년 2월 미국의 뒤를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글로벌 양적완화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9월까지 자산매입을 지속할 계획이고 일본과 중국 역시 양적완화 프로그램, 내수 부양책을 진행중인 상황으로 여전히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러스 코에스테리치 BII 글로벌 최고투자전략가는 "유망 주식 시장으로 유럽과 일본, 홍콩을 추천한다"며 "유럽 주식은 더 이상 저평가 상태로 보긴 어렵지만 유로화 약세, 신용여건 완화, 대출 증가 조짐 등으로 실적 전망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에스테리치 최고투자전략가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식으로는 양호한 가치, 금융여건 완화, 내부 개혁 모멘텀 등으로 보아 홍콩에 상장된 중국주식인 H주식이 장기적 상승세 초입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크리스 홀 BII 아시아 주식 리서치 공동대표는 "저렴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라며 "이머징 시장 주식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필수 매수 대상은 아니며 부진한 수출 증가율과 생산성 하락 등 핵심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개혁 모멘텀이 존재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국가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정다운 기자 gamja@

자존심 구긴 외국인

현대모비스·SK하이닉스 등
순매수 상위 20개 중 11개↓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주가 부진하고 중소형 주가 강세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정보업체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20개 중 11개는 이달 15일 현재 주가가 작년 말보다 낮은 상태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 2위(6408억원)인 현대모비스 주가는 작년 말보다 14.83% 하락했고 4위인 SK하이닉스(-17.7%), 5위인 삼성생명(-8.15%), 6위인 NAVER(-15.03%) 등도 낙폭이 적지 않다.

10위인 현대글로비스(-33.96%), 11위인 LG(-7.68%), 12위인 현대차(-25.15%), 14위인 기아차(-21.51%), 16위인 LG디스플레이(-26%) 등의 낙폭은 더 컸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7조6300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 왔지만 대형주에 집중돼 수익률 측면에서는 자존심을 구긴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대형주 지수는 올해 들어 1.69%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38.26%, 39.06% 상승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보유 주식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34.08%에서 이달 14일 현재 32.16%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종목 20개 중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3개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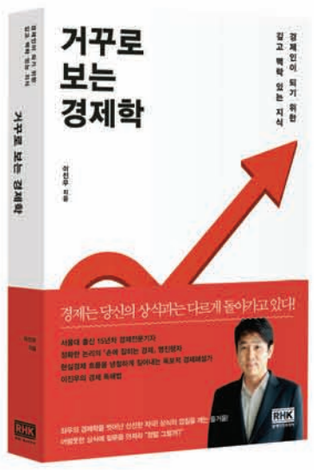
기관 역시 안정성이 높은 대형주 위주로 투자했지만 자동차주나 정보기술(IT)주에 집중한 외국인과 달리 대외 변수에 덜 영향을 받는 필수 소비재 등을 골라 담은 게 이런 차이를 낳았다.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신세계는 19.61% 주가가 올랐고 순매수 규모 7위인 이마트(19.46%), 10위인 KT&G(33.38%), 13위인 오리온(11.92%), 14위인 롯데칠성(14위·65.52%) 등의 상승폭도 컸다.

남주현 기자 jooh@

경제적 자유와 생존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경제 교양 필독서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이진우의
살아있는 경제독법
거꾸로 보는 경제학



경제는 당신의 상식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흐름을 짚고 이면을 들추는 맥락 있는 경제탐구

이 책은 거대한 경제 담론이 아닌 일상의 경제학을 다룬다. '국가의 성장이 과연 나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가?' '나의 경제적 자립과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되묻고, 잘못된 경제 상식으로 경제현상을 바라보면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낱낱이 분석한다. 교양 있고 똑똑한 당신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실용 경제학 입문서가 되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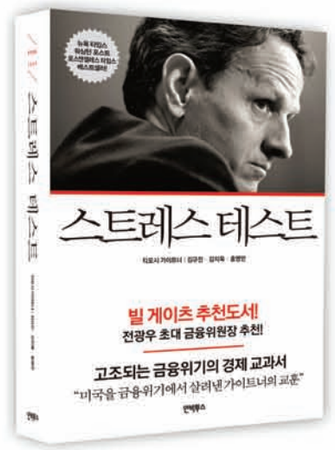
좌우의 경제학을 벗어난 신선한 자극!
상식의 껍질을 깨는 즐거움이 있다!

이진우 지음 | 267쪽
알에이치코리아 | 값 13,000원

문의 : 02-6443-8838

뉴욕 타임스·워싱턴 포스트·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베스트셀러!

글로벌 금융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스트레스 테스트
STRESS TEST



빌 게이츠 추천도서!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 추천!
고조되는 금융위기의 경제 교과서
"미국을 금융위기에서 살려낸 가이트너의 교훈"

티모시 가이트너 | 김규진·김지욱·홍영만 양장 | 664쪽 | 인빅투스 | 값 25,000원

각국 정부가 향후 닥칠지 모르는 금융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이자 내수 부진, 심각한 가계 부채로 인한 '한국의 금융위기' 대응 해법서!

문의 : 02-3446-6206

◉ 출판사 참여문의 ☎ 070-8868-2375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성광벤드 실적 부진… 발빼는 미국계 투자사

노이버거 베르만 엘엘씨, 1년여 만에 투자금 회수 나서
지분율 5.03%→3.99%…NH투자 "주가 상승 불투명"



성광벤드 주가 추이
단위: 원



코스닥 상장사 성광벤드에 투자한 미국계 투자자문사 노이버거 베르만 엘엘씨(Neuberger Berman LLC)가 1년여 만에 엑시트(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노이버거 베르만 엘엘씨는 최근 보유하고 있던 성광벤드 주식 약 30만주를 장내매도 했다.

이에 따라 노이버거 베르만 엘엘씨의 성광벤드 지분율은 5.03%(143만8980주)에서 3.99%(134만9776주)로 낮아졌다. 노이버거 베르만 엘엘씨 측은 "투자자금 회수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노이버그 베르만 엘엘씨는 지난해 2월 28일 성광벤드 주식 141만1180주를 주당 2만2153원에 장내 매수했다. 이어 3월 3일 추가로 2만7800주를 주당 2만3244원에 장내 취득하면서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노이버거 베르만 엘엘씨가 성광벤드에 투자한 금액은 320억원 가량으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노이버거 베르만 엘엘씨는 성광벤드 주가가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추락하자 향후 주가 상승을 점치고 저점 매수에 나선 것. 실제로 노이버거 베르만이 주식 매수에 나서기 직전인 작년 2월 4일 장중 한때 성광벤드는 2만11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하반기 실적 호조 전망과 달리, 작년 하반기 어닝쇼크를 기록하고 올 1분기도 부진한 실적을 내자 서둘러 투자금 회수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이버거 베르만 엘엘씨의 성광벤드 주식 변동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3월 말 이후 꾸준히 장내매도를 해오고 있다. 매수 당시 금액이 2만2000~2만3000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도 금액은 1만1000~1만5000원대로 주당 1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판 셈이다.

이는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데 따른 것.

최근 NH투자증권은 성광벤드에 대해 "전방산업 수요개선 없이는 주가상승도 없다"며 투자의견 Hold에 목표주가 1만1300원을 제시했다.

유재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성광벤드는 올해 매출액 2628억원(-10.0% y-y), 영업이익 255억원(-47.5% y-y, 영업이익률 9.7%) 수준의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글로벌텍스프리, 일본서 외국인 소비세 환급업무

〈하이쎌 자회사〉

후쿠오카 '캐널시티 하카타' 현지 법 개정에 면세사업 확대
백화점들과도 업무 협의중

하이쎌 주가 추이
단위: 원



하이쎌의 자회사인 글로벌텍스프리가 일본현지법인을 통해 후쿠오카 대형복합 상업시설인 '캐널시티 하카타'에서 외국인 대상 소비세 환급 업무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규용 글로벌텍스프리 사업총괄 전무는 "당사가 가진 국내 1위 부가세 환급 사업자로서의 노하우와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후쿠오카 최대 대형복합 상업시설 쇼핑몰 캐널시티 하카타의 외국인 대상 부가세 환급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캐널시티 하카타 외에도 도쿄 오사카 등에 있는 일본 대형 백화점들과 소비세 환급 서비스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에는 주요 백화점이나 쇼핑몰들과의 계약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관광 산업은 엔저 현상과 일본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친화적인 관광 진흥책으로 매년 30~40% 이상의 고성장(외국인 관광객 2013년 1030만, 2014년 1340만, 2015년 5월까지 750만, 출처:한국관광공사)을 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일괄 사전 면세 제도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판매점에서 인당 평균 20분 소요), 판매점의 면세판매 기피 현상(사업장 혼잡도와 업무량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0월 법 개정을 통해 한국과 동일한 사후 환급 제도를 도입해 사전 면세, 사후 환급을 면세 판매점이 병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4월에는 사전 면세 또는 사후 면세 환급 업무를 GTF 같은 환급 창구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과 인력을 갖춘 대형 유통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던 면세 사업이 일반 중소 사업자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일본 관광 산업 진흥과 면세 시장 확대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면세점 날개' 토니모리 상장 첫날 악몽 털었다

시총 2175억↑…장중 8만원 돌파

상장 첫날 급락세로 마감하며 울상을 지었던 토니모리의 주가에 파란불이 켜졌다. 면세점 수혜가 부각되며 상장 5거래일만에 시총이 2100억원 가량 증가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전일 전 거래일보다 4100원(6.31%) 오른 6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 공모가의 2.5배에 해당하는 8만1900원까지 올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거래량은 전날의 3분의1 수준, 거래대금은 400억원을 넘어섰다.

10일 종가 기준 5938억8000만원이던 시가 총액은 16일 종가기준 8114억원으로 증가하며 상장 5거래일만에 시가총액이 2175억원 증가한 것이다. 장중 시가총액이 9631억원을 기록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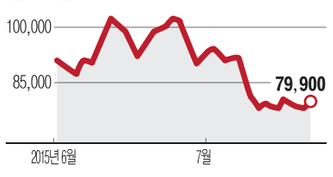
토니모리가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SM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되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SM면세점은 'Small & Medium business'의 약자로 하나투어와 영림목재, 로만손, 토니모리, 홈앤쇼핑, 삼해상사 외 4곳으로 총 10개 기업이 합작해 만든 법인이다. SM면세점이 선정한 지역은 하나투어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인사동으로 여행업과 면세점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토니모리의 경우 최근 중국에서 수백억대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고평가 논란 속에 최근 낙폭이 컸던 화장품 주로 꼽히며 상장 후 몇일 간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이번 면세점 수혜감으로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상장 첫 날의 악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현 기자 yhssoo@

잘나가던 하이로닉, 성수기에도 힘 못쓰는 까닭은

기대작 'Miraclear' 판매부진
직원이탈까지 심해지며 속앓이

하이로닉 주가 추이
단위: 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하이로닉'이 부진한 실적과 맥없이 무너지는 주가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2분기가 계절적인 성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실적을 보이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금융감독원과 하이로닉에 따르면 이 회사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55억35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6%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8억64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3% 줄어들었다.

지난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5%, 52.4% 감소한 43억8400만원, 6억8600만원을 기록했던 것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이같은 실적 부진에 대해 하이로닉 측은 신제품 출시가 당초 예정보다 미뤄지고 있는데다 기존 제품들의 판매 역시 다소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출시된 'Miraclear'의 판매가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종업계 관계자는 "당초 하이로닉은 올해 2분기부터 Miraclear 등 지난해 하반기 선보인 신제품들의 출시 효과가 반영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막상 제품이 시장에 선보였지만 일부 거래처에서는 반품 요청까지 들어오는 등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17억원 수준이었던 하이로닉의 재무재표 상 재고자산도 올해 1분기 기준 43억9800만원에 이르는 등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회사 직원들의 이탈 현상도 심해지면서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로닉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력직 직원들을 중심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회사가 설립된지 1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년여에 불과하며 경력직의 경우 이에 미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말 기준 하이로닉 직원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25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회사 안팎의 상황은 하이로닉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코스닥 이전 상장 약 2개월만인 지난해 2월 초 장중 15만4700원까지 치솟았던 주가는 현재(16일 기준) 7만9900원을 기록 중이다.

문선영 기자 moon@

"불확실성 커져…" 대우조선 신용등급 강등

한신평, 'A'에서 'A- '로

한국신용평가는 대우조선해양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리고 워치리스트 하향 검토에 등록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신평은 "해양플랜트 공정 차질과 운전자금 확대로 영업과 재무적인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며 "또한 올해 2분기 영업실적과 채권단의 재무구조 개선 협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신평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한신평은 "지난 6월에는 신규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파악한 손실 요인을 2015년 2분기 영업실적에 반영할 것임을 언급한 이후 대규모 손실 인식 가능성이 증대 돼 회계처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2015년 2분기 기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할 가능성도 관측돼 주 채권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 및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대한민국 1등 비타민C 회사※
고려은단이 만든 프리미엄 비타민C
고려은단 프리미엄 비타민C 골드
비타민C 1,000mg
비오틴 30μg
비타민D 5μg (200IU)
비타민C에 비오틴, 비타민D를 더한 프리미엄 비타민


고객센터 080-277-0006
www.koreaeundan.com
※ 조사대상 : 남녀 300명 조사기관 : (주)로이스컨설팅 조사기간 : 2015. 1. 9 ~ 2015. 1. 13

확싼정신

확싼정신이란, 확실히 싼 가격으로 정말 신선한 식품을 드릴 것을 약속하는 홈플러스의 정신입니다

확실히 싼 가격 정말 신선한 식품 홈플러스

금주 일요일 정상영업

Home plus

메르스로 고생하신 의료진,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힘내세요!

홈플 氣 세일

안전한 바캉스를 위한 **부력 보조복**

~~19,000원부터~~ **9,500원 부터**

(종류별)

바캉스가 더욱 즐거워지는 **라이더**

~~12,900원~~ **9,500원**

(종류별)

물놀이 용품/수영복 3만원 이상 결제 시 **3천원 상품권 증정**

*신한/삼성/현대카드 결제 시 *신한BC제외

다양하게 골라먹는 시원한 **세계맥주**

9,800원 (大4캔 / 5병)

맛있는 영양 간식 **육포 전품목**

50% 할인

*3대 카드 결제 시 *신한BC 제외

푸짐하게 즐기는 **삼겹살 / 목심**

~~1,250원~~ **1,000원**

(100g/냉장/수입)

*쉐밀리카드 고객에 한함

달콤하고 시원한 **100% 당도선별 수박**

9,900원 (1통/8kg이내/국내산)

*점포별 취급품목 상이

힘이 되는 홈플 쇼핑 혜택

1 쉐밀리카드

FAMILY CARD

올해도 벌써 적립포인트 219억을
466만 고객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포인트를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세요.

2 홈플 APP & 카톡 플친



QR찍고 지금 바로 APP 설치

다양한 쿠폰,
할인정보를 누리세요!

3 온라인 마트



Homeplus.co.kr

3만원 이상 구매고객

무료배송

4 한우 마일리지 페스티벌



스티커 5개 모으면 **2만 5천원**

한우가 공짜!

*스티커 증정기간 : 2015.7.2~8.13 *스티커 개수에 따라 한우 구매권으로 증정
*구매권 교환기간, 사용기간 및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 행사기간 : 7월 17일(금)부터 7월 22일(수)까지 ※ 상품 및 소비자피해보상 안내 • 상품의 원재료, 혼용률, 세탁방법 등의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가공지역, 보증기간은 상품이나 매장 또는 보증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교환환불 및 결함하자 등에 따른 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준법)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식품구매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신선식품은 진열방법에 따라 중량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광고 상품은 제조사 사정에 의해 가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점내 고지물 참조 ※ 입점 점포에 한함 ※ 신문광고상품은 온라인상품과 가격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상품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습니다.